

29일 Market Index			
↓ 코스피	6870.81 (-18.93)	↑ 코스닥	849.80 (+3.22)
↓ 금리 (미국 9년)	4.076 (-0.043)	↓ 환율 (한-달러)	1357.70 (-7.40)

“메가프로젝트 시작부터 ‘산단·정주여건 조성’ 묶어 추진”

李 대통령, 3차 민관 점검회의
“청년들 일자리 찾아 지역 몰리고
모든 지역·국민 혜택 누리는게 목표”

대한민국의 민·관이 힘을 합쳐 아쉽게 추진하고 있는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인착을 위해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 주거, 문화, 교육 등의 인프라가 어우러지는 ‘지역 상생발전 모델’이 조성된다. 단순히 산업단지만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교육·의료·문화시설을 사업 초기부터 함께 설계함으로써 기업의 투자가 지역균형 발전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게 한다는 복안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제3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주여건 미비로 가족 동반 이주가 저조했던 혁신도시 사례를 교훈삼아 사업 시작 단계부터 산업단지와 정주 여건 조성을 하나의 계획으로 묶어서 추진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 대통령이 매달 직접 주재하는 민관합동 점검회의로, 청와대 내 메가프로젝트 전담조직인 국가전략투자보좌관실이 신설된 후 처음 열렸다. 정주여건 조성 방안과 함께 남부권 반도체 벨트, 피지컬 인공지능(AI)·AI로봇 확산, AI데이터센터 구축 현황 등이 주요 의제

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회의서두에 “지난2차례 회의에서 산업단지 조성 관련 이슈를 중점 점검했다면, 오늘은 프로젝트 성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주여건 조성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메가프로젝트의 취지가 기업 투자로 생긴 일지리를 통한 전국의 균형 발전이기 때문이다. 정주 여건이 좋지 못해 직원과 가족이 지역에 정착하지 못하면, 실질적인 지역균형 발전은 이룰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청년들과 인재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지역으로 몰려들고, 또 모든 지역과 국민들이 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게 하는 것”이라며 “단순한 산업단지 건설이 아니라 첨단 산업과 주거, 교육, 의료, 문화가 어우러진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지역 내 청년과 학생을 위한 교육 및 훈련 기회 제공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도 확실하게 수립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남부권 반도체 벨트에 대해 ‘반도체 성장 모델을 수도권에서 국토 전체로 확장하는 것’이라며 “생산거점으로서의 호남, 소재부품장비 거점으로서의 영남,



안세영, 여자 단식 ‘첫 2연패’

단식에서 2연패를 달성한 것은 안세영이 처음이다.

29일 일본 아이치현 이치노미야시립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한국 안세영이 기뻐하고 있다. 아시안게임 배드민턴 여자

/뉴시스

첨단 패키징 거점으로서의 충청이라는 지역별 강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4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삼성, 美 AI인프라 기업에 10억弗 투자

삼성전자 5억弗·삼성 5개사 5억弗
 엔비디아와 ‘헬릭스’ 투자대열 합류

삼성이 엔비디아 등이 투자한 미국 AI 인프라 기업에 10억달러를 투입한다. 삼성은 계열사들이 보유한 기술과 사업 경험을 활용해 글로벌 데이터센터 시장에서 협력 기회를 넓힐 계획이다.

29일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SDS, 삼성SDI, 삼성생명, 삼성화재는 미국 AI 인프라 기업 헬릭스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에 총 1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5억달러를 맡고 나머지 5개사가 합쳐 5억달러를 투자한다. 계열사별 투자액과 지분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헬릭스는 미국 투자회사 KKR이 지난 6월 출범시킨 AI 인프라 기업으로 아마존웹서비스(AWS) 최고경영자(CEO)를 지낸 아담 셀립스키가 회사를 이끌고 있다. 회사는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가동에 필요한 발전, 광통신망 등에도 투자한다. 이를 통해 대형 클라우드 기업에 데이터센터와 전력·통신 인프라를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헬릭스가 데이터센터와 전력 시설을 함께 투자 대상으로 삼은 것은 전력 공급이 데이터센터 가동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AI 서버를 설치할 건물을 지어도 전력 공급이 늦어지면 가동할 수 없다. 헬릭스는 발전 시설과 송배전망까지 확보해 대형 클라우드 기업의 데이터센터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력 공급에는 헬릭스의 초기 투자자

인 미국 전력회사 비스트라가 협력한다. KKR에 따르면 비스트라는 헬릭스의 우선 전력 공급 협력사다. 비스트라가 대형 클라우드 기업들과 체결한 전력 구매 계약은 5000메가와트(MW)가 넘는다. 또 다른 초기 투자자인 엔비디아는 AI 데이터센터 설계를 지원한다. 쿠웨이트투자청도 투자에 참여했으며 헬릭스는 출범 당시 100억달러가 넘는 장기 투자 약정을 확보했다.

삼성 계열사들의 사업도 데이터센터 구축과 운영에 걸쳐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AI용 반도체를 공급한다. 가전 부문은 지난해 인수한 플렉트그룹을 통해 데이터센터 냉각 설비를 판매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데이터센터와 발전 시설의 설계·조달·시공 사업을 추진한다.

삼성SDS는 데이터센터 구축·운영과 그래픽처리장치(GPU)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다. 삼성SDI는 정전시 서버에 전력을 공급하는 무정전전원장치(UPS)와 배터리 백업 유닛(BBU)을 생산한다. 다만 이번 투자에 따른 계열사별 제품 공급 계약이나 수주 규모는 발표되지 않았다.

KKR과 삼성SDS는 앞서 지난 4월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었다. 당시 KKR이 운용하는 펀드는 삼성SDS가 발행하는 전환사채 1조2200억원어치를 인수하기로 했다. 삼성SDS는 확보한 자금을 AI 인프라와 AI 전환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met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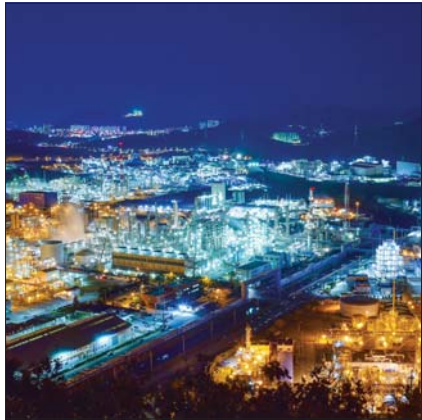
車·전력망 겨냥 ‘고부가 소재’ 개발·상용화

석화업계, 범용제품 의존 줄이기
 LG화학, 폭스바겐과 공동개발 나서
 롯데케미칼, 울산산단 생산거점 육성

석유화학업계가 자동차와 반도체, 배터리, 전력망을 겨냥한 고부가 소재의 적용처를 넓히며 범용제품 의존도를 낮출 돌파구를 찾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은 범용제품 생산설비 재편과 함께 글로벌 수요기업과의 소재 공동개발 및 제품 인증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범용제품의 수익성 회복이 늦어지자 보유한 소재 기술을 고객사의 실제 제품에 적용하고 상업 공급으로 연결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LG화학은 최근 폭스바겐그룹과 차량용 고부가 소재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고부가합성수지(ABS)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EP) 등 차량용 소재의 신규 적용 분야를 발굴하고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PCR 소재의 적용 확대와 가격 경쟁력 확보 방안을 검토한다. 협력 범위는 폭스바겐그룹 산하 자동차 브랜드로 확대할 예정이다.



여수 국가산단.

/여수시

자동차용 플라스틱의 적용 확대와 함께 미래 기술 확보에도 힘을 쏟고 있다. LG화학의 올해 상반기 연구개발비는 1조3175억원으로 집계됐다. 친환경 연·원료 기반의 저탄소 기술을 비롯해 차세대 반도체·전자 재료와 고기능 제품을 주요 연구 분야로 두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전남 울산산업단지를 기능성 소재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고 있다. 연산 50만톤 규모로 조성 중인 컴파운딩 생산기지의 일부 설비는 상업생산에 들어갔다. 자동차와 가전·정보기술(IT)용 고기능 플라스틱을 중심으로 생산하고,

향후 로봇과 항공우주용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까지 제품군을 넓힐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기능성 소재의 매출비중을 6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제품군 확대를 위한 기술 투자도 병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연구개발비는 665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구개발 성과를 기능성 소재의 상용화와 신규 적용처 확보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전력망용 소재로 사업 범위를 넓히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한화솔루션은 중국 전선업체 중토펜테크놀로지(ZTT)와 132킬로볼트(kV)급 해상풍력용 습식 케이블에 쓰이는 가교폴리에틸렌(TR-XLPE)과 반도체 소재를 공동개발하고 있다. TR-XLPE는 수분 침투로 케이블의 절연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소재다.

형통그룹과는 초고압·해저·고압직류송전(HVDC) 케이블용 XLPE 절연소재와 반도체 차폐 소재의 개발 및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4면에 계속>

/원관희 기자 wkh@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군사위성 우리 로켓으로 쏜다…우주청·국방부, 민·군 우주협력 확대
 ▲통일부,北지뢰에 “필요 조치 검토…제반사항 규명 중요”
 /사진 뉴시스

▲‘따릉이’ 등 공영 자전거 7만대 첫 돌파…청소년 사고 유일↑
 ▲감사원 “봉화군의회, ‘부패행위’ 전직 공무원 부당 채용”

▲경찰, 충주시청 압수수색…지방선거 불법 여론조사 의혹
 ▲전장연 대표, 1심 벌금형에 “앞뒤 다 자른 판결에 유감”

호남 등 재생에너지 접속 제한 완화... 신규 사업 길 열린다

정부 '2030년 전력망 혁신대책' 마련
호남권 계통관리변전소 지정 해제
사업자 공용배전망 보강 제도 개선

그동안 송배전망 병목현상으로 신규 사업 진입이 막혀 있던 호남 지역 등 전국 주요 계통 포화 지역의 재생에너지 접속 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정부가 기존 전력망 건설을 기다리는 대신 기존 인프라 운영 방식을 재설계해 2030년까지 100GW 이상의 재생에너지를 수용할 수 있는 전력계통 혁신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이상 수용을 위한 전력망 혁신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따라 내달 1일 호남권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을 해제하고, 충청 일부 지역의 신규 접속도 허용할 방침이다. 동해안 지역은 '동해안~신가평



김성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있다. /뉴시스

초고압 직류송전(HVDC) 1단계' 준공 시점인 2027년 상반기 중 해제될 예정이다. 계통관리변전소는 전력망이 포화되면 연결된 발전 설비 운영을 제한하는 변전소다.

우선 재생에너지 특성에 맞춘 유연한 접속제도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발전기의 정

격용량'을 기준으로 계통 접속 여부를 판단했으나, 앞으로는 태양광 출력이 수용량을 일시 초과할 때 출력을 제어하는 조건부 '유연접속(Non-firm access)'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배전선로의 태양광 접속 한도를 기존 14MW에서 16MW로, 변전소 접속 한도를 50MW에서 60MW로 상향해 별

도 망 건설 없이도 호남권에서만 2.6GW의 태양광 수용량을 추가 확보한다.

또 전력망을 물리적으로 증설하지 않고 도 ESS 등 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해 계통 수용량을 늘리는 비증설 대안을 본격 도입한다. 사업자가 접속용량을 초과해 설비를 설치하되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활용해 기존 용량 이내로 관리하는 '자율접속 제도'도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이에 사업자들은 계통 정격용량의 2~3배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송배전망 포화 지역에 ESS를 설치해 낮 동안의 태양광 발전량을 충전하고 밤에 방전하는 '비증설 대안(NW As: Non-Wire Alternatives)'을 추진해 2030년까지 배전망 ESS로 3GW, 변전소 ESS로 1.6GW의 추가 접속 용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그동안 전력망 접속권만 선점한 채 사업을 진행하지 않던 '하수·지연 사업'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이미 약 9GW 규모의 접속권을 회수한 정부는 장기 지연 중인 해상 풍력 사업 등의 접속 시기를 선제적으로 연기·조정해 호남에서만 2030년까지 10GW 이상의 접속권을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또 2027년 1월부터는 선착순 방식의 망 배전을 폐지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의무

화(RPS)' 경쟁입찰 나찰 사업자에게 계통 접속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접속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이외에도 신규 접속 시 초기 사업자가 공용배전망 보강 비용을 전액 부담하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한국전력공사가 먼저 투자한 후 이용 발전사업자들이 용량에 따라 분담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30년 재생에너지 수용량이 송전 기준 119GW에서 171GW로 52GW, 배전 기준 84GW에서 110GW로 26GW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호남권 송전단 수용량은 37GW에서 64GW로 늘어나 심각했던 송배전 병목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확보된 여유 용량은 10월 1일부터 기존 대기 사업자에게 우선 배분되며, 신규 사업 접속 신청은 2027년 1월부터 재개된다.

김성한 기후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새로 전력망을 건설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전력망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것"이라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1년 만에 지난 2024년 9월부터 막힌 재생에너지 계통 제약을 해제하고, 호남의 재생에너지 신규 접속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새로운 L
대한민국 농협

NH농협금융

SINCE 1965

NH농협생명

60년을 넘어 한결같이
고객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밝혀 온 NH농협생명.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모두의 인생을 비추겠습니다.

NH농협생명이
든든한 빛이 되겠습니다

대망같이

NH농협생명

현대차그룹, 글로벌 채용 속도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 높인다

美 'HMG 테크 토틀런트 포럼' 마무리
로보틱스·자율주행 등 기술 비전 공유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글로벌 기술 인재들과 미래 모빌리티 기술 비전을 공유했다.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로보틱스, 소프트웨어(SW) 등 미래 산업의 핵심 경쟁력이 기술 인재 확보에 달린 만큼 글로벌 채용 경쟁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미국 실리콘밸리 산호세 맥에너리 컨벤션 센터에서 'HMG 테크 토틀런트 포럼'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계를 넘어 함께 만들어가는 성장(Go Beyond Together)'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북미 지역 기술 인재와 그룹 임직원 등 약 380명이 참석해 AI, 로보틱스, 자율주행, 스마트 제조, SW·IT, 수소·에너지·배터리 등 6개 분야의 기술 개발 방향과 실제 적용 사례를 공유했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은 기조연설에서 현대차그룹의 미래 기술을 실제 제품과 사업으로 연결하는 전략을 소개했다. 그는 "현대차는 로보틱스와 자율주행차,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퍼지컬 AI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만프레드 하러 현대차그룹 R&D본부장 사장은 기존 엔지니어링 역량에 AI와 가상 개발 기술을 접목해 차량 개발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는 방향을 제시했다. 박민우 현대차그룹 AVP본부장 사장 겸 42dot 대표는 차량과 공장, 로봇 등 실제 환경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이 지난 17~18일(현지시간) 미국 산호세 맥에너리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HMG 테크 토틀런트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지속 학습하는 퍼지컬 AI 비전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안전하고 지능적인 모빌리티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김혜인 부사장은 전 세계 75개 이상의 그룹사와 33만 6000여 명의 임직원, R&D 센터로 구성된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혁신 생태계를 소개하고, 글로벌 인재들이 도전적인 과제를 해결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강조했다.

현대차그룹은 글로벌 기술 인재 확보를 위한 채용 연계 프로그램도 운용했다. 현대차그룹은 현업 채용 담당자와 참가자가 일대일로 대화하는 'HR 커넥트'를 운영하고, 'HMG 글로벌 테크 토틀런트 채용' 후보자를 대상으로 현장 면접도 진행했다.

전시장에는 보스턴다이나믹스의 4족 보행 로봇 '스팟', 차세대 모바일 로봇 플랫폼 '모베드', 모셔널의 아이오닉5 로보택시, SDV 아키텍처 'CODA' 등을 선보였다. /양성운 기자 ysw@



metro

“‘MAPS’ 앱 하나로 주식매매부터 투자정보·자산관리까지”

미래에셋, 주식앱 밖으로

내달부터 국내 MTS 명칭 ‘MAPS’ 홍콩서 선공개 후 국내에도 적용 상품·투자정보 등 플랫폼서 연결 홍콩 고객에 韓·美 주식시장 제공 리테일 비즈니스 확장 아닌 변곡점 개인 대상 자산관리 시장도 성장 국내선 기존 투자 지원 기능 고도화

“가격만 보는 앱이 아니라 고객이 시장을 이해하고 자신의 투자와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겸 글로벌전략가(GSO)

미래에셋증권이 세계 각지의 투자 기회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결하는 구상을 국내 투자앱에 옮긴다. 홍콩에서 먼저 선보인 ‘MAPS’를 국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의 새 이름으로 채택하고, 주식 매매 중심의 앱을 투자정보와 자산관리까지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넓힌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다음 달 1일부터 국내 MTS ‘M-S TOCK’의 명칭을 ‘MAPS’로 변경한다. MAPS는 ‘Mirae Asset Portfolio Service’의 약자다. 미래에셋증권 홍콩법인이 지난 6월 26일 현지에서 글로벌 투자 플랫폼으로 먼저 공개했다. 홍콩 출시 약 3개월 만에 국내 앱도 같은 브랜드를 사용하게 된다.

미래에셋이 바꾸려는 것은 앱의 이름만 이 아니다. 국내 MAPS는 기존 주식 거래 기능을 바탕으로 투자정보 탐색과 자산관리 서비스를 확대한다. 디지털자산 시세와 투자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용 페이지도 마련할 계획이다. 투자자가 종목을 정한 뒤 주문을 넣기 위해 찾는 앱에서, 투자 대상을 살펴보고 자신의 자산을 관



리할 때도 이용하는 앱으로 역할을 넓혀겠다는 것이다.

이는 미래에셋이 추진하는 ‘미래에셋 3.0’ 전략이 고객에게 드러나는 변화이기도 하다. 해외 시장에서 확보한 상품과 투자정보, 디지털 서비스를 고객이 사용하는 플랫폼에서 연결하는 것이 전략의 한 축이다. 기존에는 각국 법인의 사업과 서비스가 현지 시장을 중심으로 운영됐다면, MAPS에서는 여러 시장의 투자 기회를 하나의 브랜드 아래 제공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홍콩 고객에게 韓주식까지…MAPS가 먼저 향한 시장

미래에셋증권 홍콩법인은 “투자자는 하나의 앱을 통해 홍콩·미국·한국 시장과 가상자산에 접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콩 고객이 현지 주식뿐 아니라 미국과 한국 주식 등 다른 시장의 상품도 살펴볼 수 있도록 설계한 멀티자산 플랫폼이다. 홍콩법인은 올해 4월 현지 금융당국으로부터 개인투자자 대상 디지털자산 거래 서비스 승인을 받았다.

홍콩을 첫 출시 시장으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도 회사는 “아시아의 주요 금융

허브이자 디지털 자산 관련 제도가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홍콩은 국경을 넘나드는 자산관리 수요가 큰 시장이다. 홍콩법인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현지 자산·자산관리 업계의 지난해 운용자산은 약 5조4000억달러로 전년보다 20% 늘었다. 국경 간 관리 자산은 약 2조9000억달러에 달한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겸 글로벌전략가(GSO)도 지난 6월 홍콩 MAPS 공개 당시 “홍콩에 증권사를 세운 뒤 20년 만에 홍콩 리테일 고객에게 본격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순간”이라며 “이건 비즈니스의 확장이 아니라 비즈니스의 변곡점”이라고 말한 바 있다. 기관 중심이던 홍콩 사업을 개인 고객으로 넓히는 데 MAPS가 갖는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자산관리 시장도 성장하고 있다. 같은 자료에서 지난해 홍콩의 프라이빗뱅킹과 개인 자산관리 자산은 24% 증가했다. 여러 나라의 시장과 상품을 비교해 투자하는 고객에게 주식 거래와 투자정보, 자산관리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여지가 커진 셈이다. 미래에셋이 홍콩 MAPS를 특정 국가의 주식만



▲ 지난 6월 홍콩 현지에서 ‘MAPS’ 론칭 행사가 진행된 가운데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현지 직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 홍콩 증권거래소 전경. /허정윤 기자

거래하는 앱보다 넓은 멀티자산 플랫폼으로 설계한 배경이다.

특히 한국 시장은 미래에셋이 홍콩 고객에게 제공하는 투자 대상 중 하나다. 국내 투자자에게 해외 주식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서 나아가 해외 투자자가 한국 주식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한 것이다. 홍콩 고객이 한국 기업에 투자하려면 거래 기능만큼이나 종목을 찾고 시장 정보를 이해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MAPS가 매매와 투자정보를 함께 다루는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그동안 인도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서 현지 시장에 맞춘 디지털 서비스를 구축해왔다. 이처럼 지역별로 축적한 상품과 서비스 역량을 글로벌 고객에게 어떻게 전달할지는 별도의 과제다. 홍콩에서 MAPS를 먼저 선보이고 국내 MTS까지 같은 브랜드로 바꾸는 것은 국가별 사업을 고객이 이용하는 앱을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첫 단계다.

◆국내 앱은 자산관리 확대…실제 거래 서비스는 별도

국내 MAPS는 기존 M-STOCK의 주식 거래와 자산 조회 기능을 바탕으로 투

자정보 탐색과 자산관리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디지털자산 시세와 투자정보도 앱에서 한곳에 모아 제공할 계획이다. 홍콩에서 여러 시장과 자산에 접근하는 플랫폼을 먼저 선보였다면, 국내에서는 기존 MTS의 투자 지원 기능을 고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같은 MAPS라는 이름을 쓰더라도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국가별로 다르다. 홍콩 MAPS는 디지털자산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국내 개편에서 제시된 디지털자산 기능은 시세와 투자정보 확인이다. 이번 명칭 변경에 홍콩·국내 계좌나 거래 서비스의 연동은 포함돼 있지 않다. 취급 가능한 자산과 상품 판매 규정, 인허가가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미래에셋이 홍콩에서 시작한 플랫폼 브랜드를 국내 주력 앱에 적용한 것은 확인된 변화다. 다음 평가 기준은 국내 고객이 투자정보와 자산관리 기능을 얼마나 유용하게 쓰는지다. 여러 시장의 상품과 서비스를 어디까지 연결할지는 이후의 과제로 남는다.

/홍콩=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LG이노텍, 국내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

美 ‘어플라이드 인튜이션’ 기업과 2028년까지 데이터 수집 차량 운영 모빌리티 센싱 솔루션 해외 수주 공략

LG이노텍이 국내 도로에서 자율주행 데이터를 수집해 차량의 주변 인식 성능을 높인다. 실제 주행 과정에서 확인된 센서의 취약점을 개선하고 해외 완성차 업체 수주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LG이노텍은 미국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업 어플라이드 인튜이션과 국내에서 데이터 수집 차량을 운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경기에서 운행을 시작해 2028년까지 데이터 수집 차량과 소프트웨어 개발 차량을 합쳐 약 20대로 늘릴 계획이다. 양사는 지난 3월 자율주행 센서와 소프트웨어의 공동 개발·검증을 위한 파트너십을 맺었다.

먼저 데이터 수집 차량에는 카메라·레이더 등이 탑재된다. 이들 센서는 주행 중 도로 상황과 차량 움직임, 주변 물체의 위치 등을 기록한다. LG이노텍은 수집한 데이터를 가상환경과 결합해 센서 성능을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폭우 속 검은 차량이나 터널 출구의 강한 역광처럼 인식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상황을 분석해 성능



LG이노텍의 자율주행 센싱 데이터 수집 차량(Data Collection Vehicle)이 도심을 달리고 있다.

/LG이노텍

개선에 활용한다. 이 가운데 촬영된 보행자 얼굴과 차량 번호판은 비식별화한다.

LG이노텍은 서로 다른 센서의 정보를 결합하는 ‘센서 퓨전’ 기술도 고도화한다. 특정 센서의 인식 성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다른 센서의 정보를 활용해 정확도를 높이는 기술이다. 회사는 실주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센서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연동 성능을 개선할 계획이다.

LG이노텍은 자율주행용 부품 공급과 기술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아마존의 자율주행 지회사 즉스(Zoox)에 로보택시용 카메라 모듈을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미국 아에바와 차세대 라이

다 공동 개발에 합의한 데 이어 올해 5월에는 카카오톡모빌리티와 자율주행 솔루션 개발 협약을 맺었다.

LG이노텍의 센싱 모듈을 장착한 어플라이드 인튜이션의 데이터 수집 차량은 미국에 이어 유럽과 일본에서도 운행될 예정이다. LG이노텍은 이들 지역에서 확보한 주행 데이터를 센서 성능 개선에 반영하고, 이를 북미·유럽 고객 수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회사는 모빌리티 센싱 솔루션 매출을 2030년까지 2조원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



metro

피지컬AI·AI데이터센터 사업 속도 요청

>> 1면 “메가프로젝트 시작…”서 계속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피지컬AI와 AI데이터센터 사업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피지컬 AI는 공공 부문의 실증·활용을 대폭 확대해 시장 창출을 선도해야 한다”면서 “AI데이터센터의 경우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 기업 참여 등을 통해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의 최종 성공 여부는 투자 규모가 아니라 국민의 삶이 실제로 얼마나 나아졌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고 지역에는 다시 성장할 희망을, 국민에게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주는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예진 기자 syj@

한화솔루션, 전선 소재 친환경 전환 나서

>> 1면 ‘車·전력망 겨냥…’서 계속

장기간의 시험과 인증이 필요한 전선 소재의 특성을 고려해 고객사별 케이블 규격에 맞는 제품을 공동으로 개발하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화솔루션은 전선 소재의 친환경 전환에도 나섰다. 지난 8월 폐플라스틱 재활용 원료를 50% 적용한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기반 전력 케이블 자켓 제품의 고객사 검증을 마치고 상업화

에 나섰다. 이 제품은 기존 제품과 동등한 수준의 전기·가공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1kg당 탄소배출량을 약 34% 줄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석유화학업계는 고부가제품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미래 사업에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글로벌 고객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며 “소재 기술을 고객사의 실제 제품에 적용하고 장기적인 공급 관계로 연결하는 작업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추지 않도록
기업이 도전을
망설이지 않도록

신한금융그룹이 금융의 청신호가 되겠습니다
신한 「K-성장! K-금융! 프로젝트」



생산적·포용금융
20조원 지원
'26년 7월 기준



국가기반산업·핵심산업
성장자금 공급
금융주선 2.8조 | 펀드 1.2조
대출 3,250억
* 국민성장펀드, 벤처펀드 등



지역 기업 성장 지원
신한SOL클러스터
수원·광주·부산 개소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 신한캐피탈 신한자산운용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자산신탁 신한DS 신한펀드파트너스 신한리츠운용 신한벤처투자 신한EZ손해보험



“한국형 베어허그 제도·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등 추진”

與 K-자본시장특위 당정협의
거래소 저PBR 기업 공표제도 점검
상속·증여세법 개편 방안 등 논의

자본시장에서 ‘저(低)PBR(주가순자산 비율)’ 현상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인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가 29일 정부의 네이밍 앤드 셰이밍(Naming and Shaming·이름을 밝혀 망신 주기) 시행을 점검하고 베어허그제도 도입, 상속·증여세법 개편, 스튜어드십코드 활성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 K-자본시장 특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재정경제부, 국세청, 금융위, 외부전문가들과 함께 실무당정협의의를 열고 주가누르기 상종세법 개편 방안,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 추진 경과 및 자본시장법 입법 과제 등을 논의했다.

오기형 K-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에 대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기조는 일관되게 유지한다”며 “정책 기조 속에서 저희가 계속 강조했던 것이 두 가지다.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을 계속 확보해나가는 것과, 기관·장기투자자와 경영진의 소통을 강화하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서 일관되게 개선해 나가고 필요한 것들은 계속 논의해 나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전체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으로 이야기하는 저PBR 기업들이 대한민국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 되게 많다”며 “60~70% 정도가 PBR가 1 이하인데, 그런 기업들의 저PBR 현상 해소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PBR는 시가총액을 기업이 보유한 총자산으로 나눈 비율인데, PBR가 1 미만인 경우 기업을 청산했을 때 가치보다 시장에서 평가받는 가치가 낮다는 뜻이다. 자본

시장에선 한국의 고질적인 저PBR 현상이 부족한 주주환원, 불투명한 지배구조 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반영될 결과라고 지적하며 상속·증여법 개편을 통한 주가누르기 방지가 필요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위는 한국거래소가 다음달 2일부터 PBR가 낮은 상장사를 공표한 이후 이른바 네이밍 앤드 셰이밍 제도를 점검하고, 한국형 베어허그제도 입법을 위한 설득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오 위원장은 “저PBR 기업들은 장부 자체가 정상이라면, PBR가 0.2, 0.3인 기업들은 인수합병(M&A) 대상”이라며 “자본시장의 기능으로 인수합병이 이뤄지고 저



베어허그 제도란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인수 제안을 받은 상장사의 이사회가 해당 제안 내용과 검토 계획을 일반 주주에게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공개매수에 대한 공식 입장을 명확히 밝히도록 강제하는 제도.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투자자가 ‘집사(스튜어드)’처럼 고객과 국민의 자산을 충실히 관리하도록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자율 지침.

PBR 현상이 해소되는 것이 베어허그 제도다. 매수에 대한 것을 공시하게 함으로써 공시 내용을 통해서 시장 참여자가 판단해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의 빠른 입법을 위해 당 내를 설득하겠다”고 설명했다.

오 위원장은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를 두고 “이를 통해 기관·장기 투자자들이 경영진과 소통을 하면서 저PBR 현상을 해소하고 자본의 효율적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논쟁을 계속하게 된다”며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서 약간의 제도 개선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관행의 개선에 대한 고민도 있고 그에 필요한 자본시장법상 ‘5%를(상장사 주식 5% 이상 보유·지분 변동 시 의무 공시제도)’ 개

선, 공동보유자의 제도 개선 여부는 계속 논의하고 가능하다면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것”이라고 했다.

김남근 의원은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행평가를 하지는 것”이라며 “올해 말에 기관 투자자들이 우선적으로 연기금과 자산운용사가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평가를 하고 이를 내년에 국민연금이 자산운용사에게 자산운용을 위탁하는데, 이때 잘 안한 기업은 (비율을) 줄이고, 잘하는 기업들은 늘려서 스튜어드십 활동을 활성화하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 입장에서 국민연금이 5~8%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표대결이나 승부에서 영향을 결정적으로 미치지 어렵다”며 “다른 나라의 기관은 투자자들도 같이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우리는 공동 의결권 행사가 법적으로 사전에 공시하지 않고 행사할 경우엔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과도하게 규제를 하고 있어서 제도 개혁을 해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오기형 위원장은 주가 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법 개편을 두근 “정부안과 여러 의원안이 같이 있어서 대안적인 모색을 할 수 있는 지점들을 찾아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태훈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지방재정 우려… 당정 “보완책 마련”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협의
與 “내년 예산안에 지역 특수성 반영”
지자체 “안정적인 재원 확보 필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9일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들과 머리를 맞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악화돼선 안 된다”는 지역의 우려를 짚었고, 박찬대 인천시장은 “지방정부가 주민 가까이에서 제 역할을 하려면 안정적인 재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해 “지역 현안이 미래대응기금과 내년도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역마다 다른 특수성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세 수입 증가분 전체가 미래대응기금에 적립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기금 신설과 관련해 지방세수가 부족하거나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악화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석(앞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호중(앞줄 왼쪽 네번째)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전국 시도지사와 당정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협의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병도 원내대표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청년, 미래 성장, 지방, 교육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해서 지방 주도 성장의 가속화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견인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급격한 재정 수입의 변동성으로부터 지방정부의 부담을 경감하는 제정의 안전판 기능도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지방교부세 축소나 지방비 부담 우려 등 지방정부의 염려가 크다는 점을 예산정책협의회 등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다”며 “향후 예산안과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를 세심하게 반영해 미래대응기금의 완

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기금 신설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방교부세 감소로 어려움을 겪어온 지방정부에 재원이 안정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지난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부세가 연이어 줄어들었다”며 “지방정부는 이를 미리 알지 못한 채, 반영하지 못한 채 한해 한해의 살림을 다시 쥐어 짜야 했다”고 말했다.

이울러 “반면 복지, 돌봄, 노동 등 지방이 책임져야 할 일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며 “이제 세수가 회복되는 만큼 그 회

복의 몫이 지방에도 돌아와 비어 있는 공간을 채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부 측에서는 지방정부의 의견을 바탕으로 미래대응기금의 설계와 활용 방안을 보완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의 설계로 인해 지방교부세 규모가 예측치에 비해 축소되는 점에 대해 지방정부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 듣고 있다”며 “2027년 지방교부세가 올해에 비해 증가하도록 설계되고 있으나 지방정부의 기대 수준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박경수 기자 gws0325@

장동혁, 백령도 찾아 “장병 안전, 국가 책무”

국민의힘 대표, 여건 개선 약속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서북도서 최전방인 백령도를 방문해 해병대 장병들을 격려하고 “우리 장병들이 대한민국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나라를 지키고 있다면 장병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의 책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헬기로 백령도에 도착해 천안함 46용사 위령탑을 참배하고 해병대 제6여단을 방문했다. 이후 장병들과 오찬을 함께한 뒤 908 관측소(OP)와 포병대대를 차례로 방문해 작전 준비 상황과 주요 장비를 점검했다.

장 대표는 장병들과 오찬에서 “대한민국의 최일선에서 적과 마주하며 (나라를) 지키고 있는 장병 여러분을 보니 든든하다”며 “우리 장병들이 예우받으면서 편안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장 대표는 앞서 천안함 46용사 위령탑을 참배한 것을 언급하며 “천안함 파격 때도 그랬고, 얼마 전에도 북한이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뢰가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다”며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서 국민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지뢰 폭발 사고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장병들이 자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라며 “우리 국민 모두가 (장병) 여러분을 믿고 안전하게 지내고 있다”고 격려했다. 장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의 여러 상황을 볼 때 국민이 믿을 수 있고 기쁠 수 있는 것은 우리 장병 한 분 한 분”이라며 “그 누구도 아닌 여러분을 국민이 믿고 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대한민국의 방어진”이라고 강조했다.

/박경수 기자

李 “DMZ 사고 철저히 조사… 음모론 경계”

“안보에 여야 따로 없어”

이재명 대통령(사진)은 29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철저히 진상 조사를 주문하며 근거 없는 음모론을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42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주군사분계선 인근 지뢰 사고로 3명의 장병이 큰 부상을 입었다. 부상 장병과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 당국은 유엔사와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진상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사진)

그러면서 정치권을 향해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근거 없는 음모론을 부추기면 서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자주국방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강력한 국방력은 국익을 지키는 핵심 기둥”이라며 “자주국방의 핵심 열쇠인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극초음속 미사일 등 미사일 기술

첨단화에 더 속도를 내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한걸음 나아가 우리의 독자적인 기술과 능력으로 하늘과 땅, 바다, 우주까지 철통같이 방위하기 위한 최첨단 무기체계 개발과 전력화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한다”며 “단순히 싸워서 이기는 차원을 넘어, 싸울 필요 자체가 없는 진짜 평화를 만드는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지난 22일 공군에 인도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을 자주국방의 핵심 성과로 꼽았다. /서예진 기자 syj@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웃음 가득할 사장님의 내일에 하나가 힘이 되어드릴게요

활기 넘치는 가게를
꿈꾸는 사장님을 위해
곁에서 든든히 함께하며

하나가 사장님의 내일에
힘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 개선 및 컨설팅 제공

공공배달앱 연계 소상공인 금융 지원

·공공배달앱(먹깨비) 이용 소상공인 보증한도 지원

소상공인 자금 유동성 확보 및 지원

·영세가맹점 매출대금 조기지급 프로그램 운영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핑크 |

시중금융 전환 등 실적 성장… iM금융 황병우 ‘연임 도전장’

회추위, 회장 선임절차 돌입

내년 3월 임기 종료… 연내 후보 추천
업체, 황 회장 연임 가능성에 무게
사측, 내부 6명·외부 9명 후보 관리

iM금융그룹의 전국구 금융 전환을 이끈 황병우 iM금융그룹 회장이 연임에 도전한다. 첫 임기 동안 실적 성장을 이끈 만큼 연임 가능성이 높다는 안팎의 평가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iM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지난 27일 회의를 개최하고 차기 회장 선임에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2024년 취임한 황병우 회장 임기가 내년 3월 초 종료되는 만큼, 올해 12월까지 최종후보자를 추천한다는 방침이다.

황병우 회장은 연임에 대한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지만, 금융권에서는 황 회장의 연임 도전을 확신하는 분위기다. 황 회



황병우 iM금융그룹 회장.

/iM금융

장은 지난 2024년 iM금융그룹의 시중금융그룹 전환을 이끈 인물로, iM금융그룹 내에서도 전국구 금융으로의 과도기에 있

는 각 그룹 계열사의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내부사정을 잘 아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앞서 iM금융지주는 지난 8월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자격요건을 외부에 공개했다. 각 항목은 ▲업무 경험과 전문성 ▲그룹 비전 및 목표달성 역량 ▲조직관리 리더십 ▲대내외 신망 ▲도덕성·윤리의식·공정성 ▲연령 및 건강 등이다. 특히 ‘국내의 금융회사에서 20년 이상 근무했으며, 최근 5년 이내에 최고경영자 또는 부회장·부사장 경력이 있는 자’라는 요건도 명시했다.

iM금융지주는 차기 회장 지원 자격을 갖춘 내부후보자 6명과 외부후보자 9명으로 구성된 15명의 차기 회장 후보군을 관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자의 명단은 별도로 공개되지 않았으나, 내부후보군에는 황병우 현 회장 외에 강정훈 iM뱅크 은행장, 박병수 그룹리스크관리총괄(CRO) 부사장, 천병규 그룹재무총괄(CFO) 부

사장 등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권에선 황 회장의 연임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황 회장의 첫 임기동안 iM금융의 실적 및 기업가치의 성장세가 두드러졌고, 전국구 영업의 기반이 되는 중·장기 사업의 지속을 위해선 안정적인 리더십의 지속이 필요해진다. 시중금융 전환 초기인 만큼 내부사정을 잘 하는 내부 후보군이 선임될 가능성이 크다. 황 회장은 가장 유력한 후보로 평가받는다.

금융권의 세대교체 바람은 변수지만 황 회장은 67년생으로 젊다. 최근 금융권은 임기 동안의 성과와 별개로 경영 채신 및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리더십 교체를 단행하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서도 폐쇄적인 금융권 지배구조의 쇄신을 압박하는 가운데,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둔 KB금융그룹은 최근 양종희 현 KB금융 회장이 아닌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66년생)을 차기 회장으로 지목했다.

황 회장은 금융권의 세대교체 바람으로

부터 다소 자유롭다는 분석이다. 황 회장은 1967년생으로 현직 금융지주 회장 가운데 가장 젊고, 새롭게 KB금융지주의 지휘봉을 잡는 이 부문장보다도 1살 어리다. 또한 황 회장은 과거 ‘지배구조 모범관행’ 사례로 제시한 프로세스로 선임된 인물인 만큼, 정치권이 지목한 폐쇄적인 지배구조와도 거리가 있는 인물이다.

iM금융 회추위는 오는 11월 숏리스트(2차 회장후보군) 선정 이후 확정된 후보군을 공개할 예정이다.

조강래 iM금융 회추위 위원장은 “이번 선임 과정은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바탕으로 내·외부 후보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며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라며 “성공적인 시중금융 그룹 안착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최적의 후보를 추천해 회추위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라고 말했다.

asj1231@metroseoul.co.kr



metro

카드·캐피탈·저축은행 CEO 13명, 연임·교체 ‘관심’

5대 금융 산하 CEO 13명 임기 올해 만료
임추위 역할 확대… 연임가능 어려워져

주요 금융지주사의 카드·캐피탈·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가 올 연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연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금융그룹(KB국민· 신한·하나·우리·NH농협) 산하 카드사·캐피탈·저축은행 CEO 13명의 임기가 올해 연말 만료된다. 사실상 NH농협 카드와 KB저축은행을 제외한 CEO가 인사 대상이다.

여신전문금융업권에서는 박창훈 신한카드 사장, 김재관 KB국민카드 사장, 성영수 하나카드 사장, 진성원 우리카드 사장, 전필환 신한캐피탈 대표, 빈종일 KB캐피탈 대표, 기동호 우리캐피탈 대표, 김용석 하나캐피탈 대표, 장종환 NH농협캐피탈 대표 임기가 연말 마무리된다.

저축은행권에서는 채수웅 신한저축은행 대표, 양동원 하나저축은행 대표, 이석태 우리금융저축은행 대표, 김장섭 NH저축은행 대표가 연말 인사 대상이다.

이번 하반기 인사 특징은 대규모 CEO 인사가 이뤄지는 데다 자회사 CEO 선임



과정에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의 실질적 역할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지주사를 제외하고 5대 금융그룹이 하반기 CEO 인사를 단행하는 계열사

는 총 55곳이다. 특히, 그간 지주사 중심으로 이뤄지던 자회사 CEO 선임 과정에서 임추위 역할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앞서 이진진 금

융감독원은 지난주 국내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자회사 CEO 선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자회사 CEO 선임 시 특정 계파나 친소 관계에 매몰될 없이 능력에 기반한 적임자를 선별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며 “특히, 지주회사의 자회사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지추위)는 자회사의 임추위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간 금융권에서는 지주 회장이 교체되면 자회사 CEO 인사에도 변화가 생기는 경우가 많았다.

초임 여부와 재임 기간, 실적 등의 변수를 바탕으로 연임 가능성을 가늠하기도 한층 어려워졌다. 최근 최대 실적을 거둔 KB금융지주 회장이 연임에 실패하면서 실적이 연임을 좌우하는 절대 기준으로 작용하지 않는 사례가 나오면서다.

업계에서도 기존의 인사 관행이나 경영 성과만으로 대표이사의 거취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대표이사의 연임 여부를 사실상 알기 어렵다”면서 “변수가 많아지면서 내부 분석이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지난 28일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넥스트 파이낸스 코리아2026’ 컨퍼런스에서 서기원 KB국민은행 경영기획그룹 부행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카카오 ‘디지털자산 시장’ 논의

‘넥스트 파이낸스 코리아’ 컨퍼런스

KB국민은행은 지난 28일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카카오투고와 공동으로 ‘넥스트 파이낸스 코리아(Next Finance Korea) 2026’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스트 포인트: 서울(East Point: Seoul) 2026’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프라이빗 컨퍼런스는 국내외 주요 디지털자산 및 금융산업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으며, 급변하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참여자들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기원 KB국민은행 경영기획그룹 부행장과 이상률 KB국민은행 DT추진부장은 각각 기조연설과 토론 세션 발표자로 나서 새롭게 도래하는 디지털자산 시장에서도 금융의 본질은 신뢰라는 점을 강조했다.

‘KB의 디지털자산으로의 여정: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사항들’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서 부행장은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고객이 안심하고 자산을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금융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KB가 축적해온 신뢰를 디지털 영역으로 확장해 파트너들과 함께 디지털 가치의 발행과 유통을 연결하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 부장은 토론 세션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은 새로운 금융 수요를 창출하는 기회”라며 “은행은 준비자산 관리와 자금세탁방지 등 핵심적인 신뢰의 레이어(Trust Layer)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은행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실물 없는 카드결제’ 일평균 1조8000억

한은, 상반기 중 국내 지급결제동향
전년비 10.6%↑, 실물카드 결제 4배

올해 상반기 모바일기기 등을 이용해 실물카드를 제시하지 않고 결제한 금액이 하루 평균 1조8000억원에 달했다. 실물카드 미제시 결제는 전년 동기보다 10.6% 늘어 실물카드를 직접 제시한 결제 증가율의 네 배를 웃돌았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중 국내 지급결제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지급카드 이용액은 하루 평균 3조 777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6% 증가했다.

지급카드 이용액 증가율은 지난해 상반기 3.7%에서 하반기 5.6%, 올해 상반기 7.6%로 확대됐다. 개인·법인의 국내외 가맹점 결제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현금서비스는 제외한 수치다.

전체 지급카드 이용액의 79.7%를 차지하는 신용카드 이용액은 일평균 3조 100억원으로 7.3% 증가했다. 개인 신용카드 이용액이 2조 3650억원, 법인카드는 6450억원이었다.

체크카드 등을 포함한 직불형 카드 이용액은 7510억원으로 7.5% 늘었다. 선불카드 이용액은 160억원으로 규모는 작았지만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143.6%에

달했다.

국내 가맹점에서 사용된 개인·법인 신용·체크카드 결제를 별도로 보면 실물카드를 제시하지 않은 결제액은 일평균 1조 7890억원으로 10.6% 증가했다. 실물카드를 직접 제시한 결제는 1조 4220억원으로 2.5% 늘어나는 데 그쳤다.

실물카드 미제시 방식에는 카드 정보를 모바일기기에 미리 저장해 지문인식 등 간편 인증으로 결제하거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CVC 번호 등을 입력해 결제하는 방식이 포함된다.

미제시 결제 가운데 카드 간편지급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52.6%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2%포인트 높아졌다. 간편지급서비스 중에서는 핀테크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비중이 72.0%로

카드사 서비스의 비중인 28.0%를 크게 웃돌았다.

대면·비대면 여부를 기준으로 보면 대면 결제액은 하루 평균 1조 8000억원으로 5.6% 늘었고 비대면 결제액은 1조 4000억원으로 8.6% 증가했다.

은행 계좌를 이용한 자금 이동도 크게 늘었다. 상반기 소액결제망을 통한 계좌이체 규모는 일평균 127조 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6.8% 증가했다.

전체 계좌이체의 92.5%를 차지하는 전자금융공통망 이체액은 118조 4000억원으로 28.8% 늘었다. 인터넷뱅킹과 기업이 급여·대금 결제 등에 사용하는 펀뱅킹 실적이 각각 22.9%, 30.4% 증가한 영향이다.

/김주형 기자 gh471@

데이터센터월드 아시아 2026

LG전자, AIDC 냉각·전력·운영 ‘원 LG’ 솔루션 제시

‘하이드로닉 모듈러 솔루션’ 공개
데이터센터 전반 사업기회 확대
“AI 인프라 시장 핵심 사업자 도약”

LG전자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냉각 기술을 넘어 구축과 운영까지 아우르는 인프라 사업 확대에 나선다. 모듈형 냉각 인프라를 앞세워 데이터센터 구축 기간과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고 고객의 증설 수요에도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29일 LG전자는 이날 싱가포르에서 개막한 아시아 최대 데이터센터 전시회 ‘데이터센터월드 아시아(DCWA) 2026’에 참가해 AI 데이터센터의 열 관리부터 전력, 운영까지 아우르는 토털 솔루션을 선보였다.

이번 전시에서는 펌프와 밸브, 비상용 버퍼탱크 등 냉각에 필요한 설비를 하나의 유닛으로 구성한 ‘하이드로닉 모듈러’ 솔루션을 처음 공개했다. 펌프와 배관을 국제표준화기구(ISO) 표준 컨테이



LG전자가 29일 싱가포르에서 개막한 ‘데이터센터월드 아시아 2026’에 참가해, 엔비디아 규격 승인을 받은 1MW와 2.6MW 냉각수분배장치(CDU)를 포함한 AI 데이터센터 냉각 솔루션을 선보인다. /LG전자

너 안에 통합해 사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칠러와 연결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칠러에서 만든 냉수를 서버실로 보내기 위해 현장에서 다수의 펌프와 배관을 용접·조립해야 했다. 하이드로닉 모듈러 솔루션은 주요 설비를 완제품 형태로 공급해 현장 작업과 구축 기간을 줄일 수 있다. 필요한 만큼 모듈을

추가할 수 있어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고 향후 서버 증설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AI 연산 수요 확대와 서버 고집적화로 데이터센터의 발열을 관리하는 냉각 인프라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AI 칩의 액체냉각 적용률이 지난해

약 33%에서 올해 53%, 2027년에는 약 60%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LG전자는 데이터센터용 ‘공랭식 무급유 인버터 터보 칠러’도 선보였다. 마그네틱 베어링 기반 무급유 압축기로 마찰 손실을 줄이고 냉각 효율을 높인 제품이다. 외부의 차가운 공기를 활용하는 냉매 프리쿨링 기술을 적용해 에너지 사용량도 줄였다.

AI 데이터센터의 고발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액체냉각 제품군도 확대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1메가와트(MW)와 2.6MW급 냉각수분배장치(CDU)를 공개했다. LG전자는 600킬로와트(kW)급을 시작으로 1MW와 2.6MW급 CDU까지 엔비디아의 품질 규격 승인을 받았다.

전기가 통하지 않는 특수 냉각 유체에 서버 등 전자기기를 직접 담가 열을 식히는 액침냉각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칠러부터 냉각수를 분배하는 CDU, 칩에서 발생하는 열을 직접 흡수하는 쿨드 플레이트까지 연결하는 ‘칩

투 칠러’ 냉각 포트폴리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계열사 역량을 결합한 ‘원(One) LG’ 솔루션도 제시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백업유닛(BBU)과 배터리에너지 저장장치(BESS), 무정전전원장치(UPS)용 배터리 솔루션을 선보였다. LG CNS는 GPU와 서버, 전력·냉각 설비 등을 모듈화해 사전 제작하는 ‘프리패브 모듈형 데이터센터(PMDC)’를 공개했다.

LG전자는 냉각 기술과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LG CNS의 데이터센터 설계·구축·운영 역량을 결합해 데이터센터 설계부터 구축, 운영, 확장까지 사업 기회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이재성 LG전자 ES사업본부장 사장은 “초대형 AI 데이터센터에 최적화된 냉각 토털 솔루션을 앞세워 글로벌 AI 인프라 시장에서 핵심 파트너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삼성SDI, AIDC용 원통형 LFP 배터리 등 차세대 제품 공개

무정전 전원장치·셀 라인업 등 소개

삼성SDI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원통형 배터리에 리튬인산철(LFP) 소재를 적용하며 제품군을 다변화하고 있다. 기존 삼원계 제품에 출력과 용량, 안전성을 높인 LFP 배터리를 더하면서 데이터센터용 배터리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SDI는 싱가포르에서 개막한 ‘데이터센터 월드 아시아(DCWA) 2026’에 처음 참가해 AI 데이터센터용 배터리 솔루션과 제품 라인업을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

삼성SDI 부스에는 무정전 전원장치(UPS), 배터리 백업 유닛(BBU), 삼성 배터리 박스(SBB), 셀 라인업(Cell Line-up)을 각각 소개하는 4개 구역이 마련

됐다. BBU 구역에서는 AI 데이터센터의 비상 전원 공급을 위한 원통형 LFP 배터리가 처음 공개됐다.

새 배터리에는 삼성SDI의 독자적인 구조 기술이 적용됐다. 출력과 용량을 높이면서 안전성을 강화한 제품이다. 같은 구역에는 하부 벤트 설계로 안전성을 높인 고효율·고용량 삼원계 원통형 배터리도 전시됐다.

LFP 소재는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에도 적용됐다. 삼성SDI는 일체형 ESS 솔루션인 ‘SBB 2.0’에 탑재할 각형 LFP 배터리를 전시했다. 데이터센터용 원통형 LFP 제품과 ESS용 각형 LFP 제품을 함께 소개하며 소재와 형태에 따른 제품 구성을 제시했다.

UPS 구역에서는 안전성 시험을 통과한 솔루션을 소개했다. 이 제품은 글로벌 안전 인증기관 UL 솔루션즈가 주관한 옥내 대형 화재 테스트(LSFT)에서 모든 기준을 충족했다. LSFT는 배터리 폭발과

열 전파 위험을 검증하는 평가다. 삼성SDI는 UPS 솔루션이 모든 기준을 충족한 것은 세계 최초라고 설명했다.

삼성SDI는 행사 기간 글로벌 고객사에 기술 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기술 콘퍼런스에서 데이터센터용 배터리 솔루션을 발표할 예정이다.

삼성SDI 관계자는 “성능과 안전성을 향상시킨 배터리 기술을 기반으로 데이터센터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차별화된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삼성전기, MLCC 등 AI 부품 공급계약 줄이어

(적층세라믹커패시터)

올 들어 다섯번째 장기공급계약 체결
인덕터 등 고부가 제품시장 공략 속도

삼성전기가 글로벌 대형 고객사와 2900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서버용 부품 공급계약을 따내며 고부가 제품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올해 장기공급계약 규모만 3조6000억원에 달하면서 AI·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넓히는 모습이다.

삼성전기는 글로벌 대형기업과 약 2900억원 규모의 AI 서버용 적층세라믹 커패시터(MLCC) 및 인덕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계약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이번 계약은 공시 기준 올해 다섯 번째 장기공급계약이다.

MLCC는 전자회로에 전류가 안정적으로 흐르도록 조절하고 부품 간 신호 간섭을 막아주는 핵심 수동부품이다. AI 서버와 데이터센터는 안정적인 전원 공급과 전력 변동 대응이 중요해 고용량·고신뢰성 MLCC가 요구된다.

인덕터는 전류 변화에 대응해 전원 공급을 안정화하고 전력 변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이즈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AI 서버의 고성능화로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고전류·고효율 특성을 갖춘 제품의



삼성전기 수원사업장 전경. /삼성전기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삼성전기는 AI 서버의 전력 특성에 맞춰 고전류 대응과 고신뢰성을 갖춘 인덕터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MLCC 역시 고객사 요구에 맞춰 고용량·고신뢰성 구현을 위한 기술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며 AI 서버와 데이터센터 등 고부가 응용처를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계약은 삼성전기의 MLCC·인덕터 기술력과 제품 신뢰성뿐 아니라 글로벌 고객사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기반으로 이뤄졌다. 삼성전기는 제품 성능 고도화와 함께 안정적인 공급 능력을 확보해 글로벌 AI 서버 시장의 수요 증가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기는 현재 글로벌 기업 10여개사와 MLCC 장기공급계약(LTA)을 체결하

고 있으며 다른 글로벌 기업과도 추가 계약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계약을 포함해 올해 체결한 실리콘 캐패시터와 AI 서버용 MLCC·인덕터 장기공급계약은 공시 기준 약 3조6000억원 규모다. 회사는 이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하고 고부가 제품 중심의 포트폴리오 전환을 가속한다는 방침이다.

AI 서버 시장 성장에 따라 관련 수동부품 수요도 확대될 전망이다. AI 서버용 MLCC는 일반 서버보다 탑재량이 10배 이상 많다. 골드만삭스는 관련 시장이 지난해 14억달러에서 2030년 58억달러로 연평균 약 34%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전기는 AI 서버용 MLCC 시장에서 4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인덕터 시장도 AI 서버 확산을 타고 성장세가 예상된다. 시장조사업체 360아이라서치는 글로벌 AI 서버용 인덕터 시장이 지난해 20억9000만달러에서 2032년 89억70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전기 관계자는 “글로벌 AI 시장의 기술 고도화와 함께 요구되는 MLCC 성능과 신뢰성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며 “차별화된 기술력과 안정적인 공급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고객사들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가온전선, 美 송전용 가공선 생산설비 투자

美 현지 사업 송전분야 확대

가온전선이 미국 현지 생산 체계를 배전에서 송전 분야로 확대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신규 발전소 건설로 송전망 투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현지 법인에 송전용 가공선 생산설비를 추가해 전력 인프라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가온전선은 미국 생산법인 LSCUS가 가공선 생산설비 투자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LSCUS는 현재 중전압(MV)·저전압(LV) 케이블 생산라인을 증설하고 있다. 올해 10월 1단계에 이어 내년 상반기 2단

계 증설을 완료할 예정이다. 여기에 가공선 생산설비를 구축해 배전 중심이던 미국 사업을 송전 분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가온전선은 이미 미국 박테크 기업이 텍사스주에 건설하는 AI 데이터센터 전력 망용 발전소에 LV 케이블을 공급하고 있다. 가공선 생산설비 투자가 완료되면 발전소 내부용 케이블에 이어 송전망용 제품까지 현지 공급 품목을 확대할 수 있다.

정 현 가온전선 대표는 “LSCUS를 중심으로 송전부터 배전까지 현지 공급체계를 강화해 미국 전력 인프라 시장 공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OCI, 전북 반도체 특화단지 앵커기업 참여

반도체 패키징용 웨이퍼 재생 사업 속도

OCI가 전북 반도체 화학소재 소부장 특화단지의 앵커기업 참여를 계기로 초고순도 소재 생산 확대와 반도체 패키징용 웨이퍼 재생 사업에 속도를 낸다.

OCI는 군산·익산·완주 지역에 조성되는 반도체 화학소재·소재·부품·장비 특화 단지에 앵커기업으로 참여한다고 29일 밝혔다.

OCI는 기존 생산시설을 기반으로 반도체용 초고순도 소재의 기술 경쟁력과 생산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동시에 신규 소재 사업도 육성한다. 반도체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스페셜티 에너지를 개발하고 반도체 패키징용 웨이퍼 재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원재료와 공정 소재 중심의 사업 범위를 패키징 분야로 넓혀 반도체 밸류체인 전반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원관희 기자



(왼쪽 4번째부터)이병헌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중소 정책효과 ‘성장유형’ 따라 달라 맞춤형 ‘스케일업 지원’ 필요 커져

중기중앙회·중소벤처기업연구원
고성장 기업은 고용 증가 두드러져
잠재력 높은 기업은 매출개선 뚜렷
수출바우처 비수출기업서 성과 커
단년도·소액서 다년도·패키지 전환

빠르게 커가는 기업에는 고용에 대한 지원효과가,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에는 매출을 올리기위한 정책효과가 각각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출바우처 지원은 수출기업보다 비수출기업에서 효과가 컸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연구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연 ‘중소기업 정책 심포지엄’에서 나왔다.

이날 행사는 ‘모두의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전환 : 성장유형별 성과와 스케일업 지원’을 주제로, 중소기업의 성장유형별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정책성과를 모두의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 정책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한 김준엽 중소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SIMS(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의 중소기업 약 24만4000개사와 67개 성장촉진 지원사업

을 분석해 기업의 성장유형과 성장잠재력에 따른 정책효과를 살펴봤다.

김 부연구위원은 “분석 결과 성장기업에서 고용에 대한 지원효과가 상대적으로 컸으며,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에서도 매출에 대한 정책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면서 “성장촉진형 지원사업의 경우 성장성·성장잠재력 기반 사전평가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별하고, 단년도·소액·분절적 지원에서 다년도·대규모·패키지형 스케일업 지원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두번째 주제발표를 한 전계형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는 수출바우처사업의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 데이터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수출성과에 미치는 정책효과와 기업 특성에 따른 효과 차이를 설명했다.

전 교수는 “분석 결과 수출바우처 지원은 중소기업의 수출 증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며 기존 수출기업보다 비수출기업에서, 매출과 업력 등 일정한 사업기반을 갖춘 기업에서 지원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면서 “수출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기업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대상 선정이 필요하며, 향후에는 정책효과 차이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분석결과가 지원대상 선정과 사업설계에 활용되는 데이터 기반 정책설계

체제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선 이병헌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좌장으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성과를 실제 기업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한 지원대상 선정, 성과관리 및 제도 개선방향 등을 논의했다.

김희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은 누구나 스타트업에서 시작해서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그리고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850만 전체 기업 중 95.3%가 소상공인이고, 소기업과 중기업은 4.6%에 불과할 정도로 성장하기가 쉽지 않다”며 “모두의 성장을 위해선 810만이 넘는 다수의 소상공인이 소기업·중기업으로 더 많이 커나가게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승훈 연세대 교수는 “성장성이 높은 기업과 정책지원 효과가 큰 기업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닌 만큼 사업·기업규모별 특성과 정책효과 차이점을 함께 고려한 지원대상 선정이 필요하다”면서 “수출지원정책도 수출액 뿐만 아니라 생산성·부가가치·고용 등 장기적인 성과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중소업체 “현장 맞춘 노동규제 필요”

대한상의 중소기업위 회의 개최
고용부 차관 초청 정책 논의

중소기업계가 인력난과 노동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장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상의회관에서 관장준 고용노동부 차관을 초청해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회 제10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윤석근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20여명이 참석했다.

관장준 차관은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저출생·고령화와 인공지능(AI) 전환 등 노동시장 변화를 짚었다. 청년·중장년·외국인력 확보와 일·육아 양립 지원, AI 활용 역량 강화, 노동시간 단축 지원 등을 정책방향으로 소개했다. 그는 “정부는 중소기업의 현실과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살피면서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향상을

뒷받침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노동자의 권익과 안전도 함께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정책 방향에 중소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윤석근 위원장은 “중소기업이 각자의 업종과 기업 여건에 맞게 인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현장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고용·노동정책이 필요하다”며 “기업들이 업종별 특성에 맞는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고 외국인력도 한층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중소기업위원회 위원들은 주 52시간제 특별연장근로제 개선과 외국인력 고용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정부·공공·금융기관 간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과 법정외무교육 이수 방식 개선, 4대 보험 통합 처리 포털 도입도 제안했다.

/원관희 기자 wkh@

CJ대한통운, 당근과 중고거래 물류 확대

내달 10일 첫 ‘당근절’ 지원
오네로 전국 단위 배송 맡아

CJ대한통운이 국내 대표 지역생활커뮤니티 당근과 손잡고 중고거래 물류서비스를 강화한다.

CJ대한통운은 당근이 오는 10월 10일 처음 개최하는 연중 최대 중고거래 행사 ‘당근절’을 맞아 전국 물류 인프라를 통해 행사 운영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당근절은 지역 이웃 간 중고거래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소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한 행사다. 고객들은 10월 10일 하루 동안 당근 바로구매를 통해 물품 구매할 경우 1인 최대 5회까지 ‘배송비 0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별도 쿠폰 등록 없이 결제 시 자동 적용되는 만큼 이용자들은 가격대가 낮은 물품부터 희소성이 있는 물품까지 전국 단위로 부담 없이 거래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혜택은 운영 상황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당근절에 함께하는 CJ대한통운 관련 이미지.

CJ대한통운은 주7일 배송 서비스 오네(O-NE)를 통해 중고거래 물류 서비스를 제공한다. 당근 바로구매는 판매자가 배송을 신청하면 CJ대한통운 배송기사가 방문 집화해 구매자에게 전달하는 택배거래 서비스다. 물품 집화부터 최종 배송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물류 체계로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거래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위 중고거래 환경을 구축해왔다.

/김승호 기자

LS전선, AIDC 전력사업 확대

‘데이터센터 월드 아시아 2026’ 참가
버스바·커넥터 서버랙 신제품 공개

LS전선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전력 솔루션의 적용 범위를 서버랙 내부로 넓힌다. 대용량 전력 공급에 이어 랙 내부의 전력 분배·연결까지 제품군을 확장하며 데이터센터 전 구간 대응에 나선다.

LS전선은 LS머트리얼즈와 함께 29일부터 30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데이터센터 월드 아시아(Data Centre World Asia) 2026’에 참가해 서버랙용 신제품을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제품은 서버랙 내부에서 전력을 분배·연결하는 버스바(Bus Bar)와 커넥터 등이다.

LS전선은 대용량 전력을 서버랙 인근까지 전달하는 버스덕트(Bus Duct)에 이어 랙 내부 제품까지 포트폴리오를 넓혀 AIDC 전력망부터 서버랙까지 아우르는 ‘From Grid to Rack’ 솔루션을 구축한다.

통신과 전력 안정화 솔루션도 선보인다. LS전선의 광케이블은 데이터센터 간



LS전선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DCWA에서 AI 데이터센터용 전력 인프라 솔루션을 선보이고 있다. /LS전선

연결(DCI)과 내부 서버·장비 간 초고속 대용량 데이터 전송을 지원한다. AI 연산량 증가로 데이터 트래픽이 늘면서 고용량 광통신 인프라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LS머트리얼즈는 울트라커패시터(UC)를 공개한다. UC는 AIDC의 순간적인 전력 변동에 대응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지원하는 에너지저장장치다.

AIDC 고밀도화에 대응한 차세대 전력 기술도 소개한다. 직류(DC)용 버스덕트와 초전도 전력 시스템을 통해 제한된 공간에서 대용량 전력을 공급하는 기술이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

KG케미칼

조달청 G-PASS 기업 선정

KG케미칼이 조달청 기업 지정 제도를 활용해 글로벌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 KG케미칼은 조달청이 지정하는 해외 조달 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 기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G-PASS는 국내 조달시장에서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갖춘 기업 중 해외 조달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조달청이 선정해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조달청은 올해 3분기 G-PASS 기업으로 55개사를 새로 지정했다. KG케미칼은 이번 선정을 계기로 해외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특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과 ‘유망기업 집중지원 사업’ 등을 활용해 글로벌 공공조달 분야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KG케미칼은 1954년 국내 최초 민간 비료회사로 설립된 이후 유기질·미생물 비료와 친환경 농자재를 비롯해 건설소재 화학제품, 수처리제, 요소수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왔다.

/양성운 기자 ysw@

중견기업, 경기전망 5분기째 상승

중견련, 800곳 대상 조사
4분기 전망지수 90.5로 올라

중견기업 4분기 경기는 내수가 상승하고 수출은 하락할 전망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중견기업 8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해 29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4분기 경기전망지수는 전분기(87.6) 대비 2.9포인트(p) 증가한 90.5를 기록했다. 5분기 연속 상승세다.

제조업 경기전망지수(90.1)가 전분기 대비 5.7p 상승하면서 전체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식음료품과 자동차 업종에서 두 자릿수 상승폭을 보였다.

비제조업 경기전망지수는 전분기 대비 0.1p 오른 90.7을 기록했다. 부동산, 기타 비제조 업종에서 증가한 반면 건설 업종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

수출전망지수는 전분기 대비 하락한 93.7로 집계됐다. 제조업은 전분기 대비 4.7p 감소했고, 비제조업은 0.6p 늘었다.

제조업 부문에서는 자동차, 1차금속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비제조업의 경우 운수업종이 두 자릿수 상승했고, 출판·통신·정보서비스업종이 가장 많이 하락했다. 내수전망지수는 전분기보다 1.5p 상승한 91.6을 기록하며 6분기 연속 상승했다.

생산, 영업이익, 자금 등 주요 경영지표 전망은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생산전망지수는 전분기에 이어 상승한 반면, 영업이익과 자금 전망지수는 하락했다.

생산전망지수는 93.7로 전분기 대비 1.2p 올랐다. 영업이익전망지수는 전분기 대비 0.9p 감소한 88.9다. 자금전망지수는 제조업과 비제조업이 동반 감소하면서 전분기 대비 3.1p 낮은 93.1로 집계됐다.

김현철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경기 회복에 대한 중견기업의 기대가 해외 시장 개척, 투자 확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국회 등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숨은 길을 세계적인 관광상품으로

대한민국 로열로드 45

지정도시 전국 모집

관광객이 미처 알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길,
로열 로드카를 타고 만나는 45 개의 특별한 여행



전국 45 곳 발굴 · 45 개 공식 지정 · 1 곳 당 로드카 20~30 대, 2~3 개 팀 운영

1개 팀 10대 · 관광객 20명

2~3개 팀 20~30대



모집 대상

왕실문화·역사·바다·강·호수·산사·농촌 풍경 등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길을
로드카 20~30대가 2~3개 팀으로 나뉘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지역

선정 지역에는 노선개발·여행상품·공동홍보·통합예약·지정도시 인증을 지원합니다



권장 신청구조

지자체 + 지역 운영파트너 + 상인·주민 협의체

지역의 길을 관광산업으로 바꿀 대한민국 로열로드 지정도시를 찾습니다

사업 참여 문의 010-3414-4939



개인정보 유출 사고 책임경영 강화 통신3사, 5년간 3조6000억 투입

통신3사 대표, 공동선언문 발표
유출사고 사전 예방 보호체계 구축
내부통제 정비, PET 개발 등 추진

이동통신 3사가 개인정보 보호에 5년간 총 3조6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2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로 높아졌다. 개정 전 3%였던 과징금 상한이 대폭 확대됐고, 과징금 산정 기준도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에서 전체 매출액으로 변경됐다.

또한 대표자를 법률상 개인정보 처리 및 정보보호의 최종 관리자로 명시하면서 최고경영자(CEO)의 책임도 커졌다. 개인정보 보호를 경영 리스크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 배경이다.

이에 박윤영 KT 대표, 정재현 SK텔레콤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가 직접 나서 개인정보 보호를 경영의 핵심 과제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지난 28일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과 만나 정보보호 투자 확대, 전문인력 확충, AI 활용 과정의 개인정보 처리 투명성 강화 등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통신 3사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보호체계를 구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왼쪽부터), 정재현 SK텔레콤 대표, 박윤영 KT 대표가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장과 통신3사 CEO 간담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축할 계획이다.

통신 3사가 정보보호에 투입하는 금액은 총 3조6000억원에 달한다. SK텔레콤은 5년간 2조2000억원,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7000억원을 정보보호 체계 고도화 등에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내부통제를 정비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PET) 개발과 계약학과 선발 등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에도 나선다.

다만 대규모 투자에도 일선 현장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과제다. 통신 3사는 전국 대리점과 판매점 등 방대한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어 현장까지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촘촘한 관리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활용을 둘러싼 제도적 불확실성도 부담이다. 내년 3월 시행되는 AI 특례는 고객 정보의 원본 데이터를 AI 학습과 성능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통신업계에서는 실제 AI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와 위험요인 평가 기준 등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위는 기업의 AI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날 통신3사에 “통신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metro

메타 ‘AI 안경’, 카메라 신뢰가 韓 공략 관건

신규 라인업 9개 모델, 21종 韓 판매
과기부,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 착수

메타가 인공지능(AI) 안경 제품군과 판매망을 확대하며 한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네이버지도 등 국내 서비스와의 연동도 본격화하는 가운데 핵심 기능인 카메라를 둘러싼 무단촬영과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대중화의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아이앤씨는 메타 AI 글래스 신규 라인업 9개 모델, 21종의 국내 판매를 시작했다. 메타 자체 브랜드와 레이벤 메타 3세대, 블랙핑크 리사 협업 에디션 등이 포함됐다. 가격은 48만~86만원이다.

판매처도 일렉트로마트와 롯데하이마트, SSG닷컴에서 SK텔레콤·KT 온라인 몰과 일부 대리점까지 넓어졌다. 메타는 네이버와 협력해 연내 레이벤 메타와 오클리 메타에 네이버지도 기반 도로 길안내 기능도 도입한다.

◆ 일상으로 들어온 AI 안경…카메라는 ‘야만의 검’

AI 안경의 핵심 경쟁력은 카메라다. 사용자가 바라보는 장면을 AI가 이해해 사물을 인식하고 사진·영상 촬영이나 번역·검색 등으로 기능을 확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 안경과 외형 차이가 크지 않아 주변 사람이 촬영 여부를 즉시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국내에서는 AI 안경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사례까지 등장하면서 무단촬영과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현실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도 동의 없는 촬영과 민감정보 노출, 학교·자격시험 부정행위 등을 AI 글래스 확산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제도적 과제로 지목했다.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AI 글래스의 시험 부정행위와 무단촬영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안전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다.



메타는 23일(현지 시간) 열린 연례 기술·개발자 행사 ‘메타 커넥트 2026’에서 ‘레이벤 메타 3세대’를 공개했다. 사진은 케이팝 아이돌 ‘블랙핑크’의 리사와 협업한 ‘메타 글래스’ 컬렉션.

/메타

◆ 1년 만에 263% 성장…성능 넘어 ‘신뢰 경쟁’

메타는 카메라가 없는 제품으로도 선택지를 넓히고 있다. 지난 23일 미국에서 공개한 ‘레이벤 메타 오디오’는 카메라를 빼고 음악·통화·실시간 번역과 AI 비서 등 오디오 기능에 집중했다.

시장 성장세는 가파르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글로벌 AI 글래스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263% 증가했다. 메타는 디스플레이가 없는 AI 안경 시장에서 94%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제품과 판매처가 늘고 AI 안경이 일상으로 들어올수록 카메라에 노출되는 주변 사람의 불안을 해소하는 문제도 중요해질 전망이다. 기술 성능뿐 아니라 촬영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한다는 신뢰가 시장 확대의 또 다른 경쟁력이 되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AI 글래스가 대중화될수록 촬영 여부를 주변 사람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장치와 개인정보 보호 기준이 중요해질 것”이라며 “기술의 편의성과 함께 이용자와 주변 사람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시장 확대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KT 고객 의견 직접 듣고 상품·서비스·제도 개선

소상공인과 ‘찾아가는 고객경청포럼’

KT는 고객 참여형 소통 프로그램 ‘찾아가는 고객경청포럼’을 확대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KT의 고객경청포럼은 고객들의 서비스 이용 경험과 불편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이를 상품·서비스와 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4월 처음 개최한 이후 매달 청년 고객, 시니어, 도서간간 지역, 외국인, 2세대 등 다양한 고객군을 만나 의견을 청취해 왔다.

포럼에서 도출된 의견은 유관 부서와 공유해 개선 필요성과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개선과제로 연계된 사항은 추진 현황을 지속 점검한다.

지난 8월 운영을 시작한 시니어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은 앞서 고객경청포럼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한 조치로, 월 2회 일부 KT플라자 매장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 멤버십 앱의 편의성을 높이고, 외국인 고객의 상담 접근성과 이용 안내를 개선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달에는 소통 범위를 소상공인의 사업 현장으로 넓혔다. 지난 28일 진행한 여섯 번째 고객경청포럼에서는 외식업, 카페, 무인매장 등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 고객이 참여해 매장 운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디지털 서비스 이용 경험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조민선 기자

한국 배그 모바일 대표팀 막판 뒤집기로 메달 노린다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결승 2일 차 첫경기서 1위 차지
종합 순위도 6위 → 5위로 상승
첫날 중반 고전 후 ‘반전’ 흐름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메달을 노리는 대한민국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대표팀이 결승 둘째 날, 첫 경기부터 ‘치킨’을 잡으며 추격에 속도를 냈다. 첫날 6위로 반환점을 돈 한국은 남은 경기에서 두 대회 연속 메달 획득에 도전한다.

29일 한국 대표팀은 일본 아이치현 도코나메 아이치 스카이 엑스포에서 열린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결승 2일 차 첫 경기인 7매치에서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7매치에서 상대 선수 6명을 처치해 6점, 매치 1위에 따른 순위 점수 10점을 얻어 총 16점을 추가했다. 첫날까지 38점이었던 누적 점수는 54점으로 늘었고 종합 순위도 6위에서 5위로 한 계단 상승했다.

첫날까지만 해도 메달권과의 격차는 작지 않았다. 한국은 28일 열린 결승 1일 차 6개 매치에서 순위 점수 15점과 처치 점수 23점을 합쳐 38점으로 12개국 가운데 6위를 기록했다. 3위 인도네시아와는 17점 차였다.

한국은 첫날 경기 중반까지 고전했다.

첫 매치에서 9점을 확보했지만 이후 좀처럼 점수를 쌓지 못하면서 한 때 8위까지 밀렸다.

반전은 후반부터 시작했다. 전장이 에란겔에서 미라마로 바뀐 뒤 교전력이 살아났고, 첫날 마지막 6매치에서는 2위와 7위를 기록하며 한 경기에서 13점을 추가했다. 5매치 종료 당시 8위였던 순위도 6위까지 끌어올렸다.

이 흐름은 둘째 날까지 이어졌다. 한국은 7매치에서 ‘현빈’ 전현빈의 저격과 ‘파비안’ 박상철의 적극적인 교전을 앞세워 이번 대회 첫 치킨을 확보했다. 첫날 마지막 경기부터 2개 매치에서만 29점을 추가하면서 메달권 추격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대회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결승은 12개국이 이틀간 총 12개 매치를 치른 뒤 순위 점수와 처치 점수를 합산해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특히 선수 간 직접 교전 없이 별도의 경기 방식으로 진행됐던 항저우 대회와 달리 이번 대회에서는 기존 배틀로얄 방식이 적용됐다.

한국은 김준하, 박상철, 송수안, 전현빈, 정유찬 등 5명으로 대표팀을 구성했다. 한국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데 이어 아이치·나고야에서도 두 대회 연속 메달에 도전하고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

카카오, AI 모델·에이전트 안전성 검증

인공지능안전연구소와 ‘맞춤’

카카오가 인공지능안전연구소와 손잡고 인공지능(AI) 모델과 AI 에이전트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체계 구축에 나선다.

카카오는 지난 28일 인공지능안전연구소와 AI 안전성 공동 평가 및 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생성형 AI와 AI 에이전트 기술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모델의 잠재적 위험을 서비스 적용 전후에 식별하고 검증하는 안전성 평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카카오는 지난해 인공지능안전연구소와 자체 언어모델 ‘카나나-1.5-9.8B’의 공동 안전성 평가를 진행한 데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협력 범위를 확대한다.

양사는 앞으로 AI 모델과 에이전트를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성 평가 기반을 구축한다. 카카오는 평가 대상이 되는 자사 AI 모델과 AI 에이전트를 제공하고 평가 수행 및 평가도구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를 지원한다. 인공지능안전연구소는 평가 수행과 방법론 고도화를 담당한다.

협력은 총 3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언어모델을 대상으로 배포 전후 안전성 평



카카오는 지난 28일 인공지능 안전연구소와 AI 안전성 공동 평가 및 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카카오 김세웅 AI 시니어 성과리더, 인공지능안전연구 김명주 소장이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카카오

가를 실시하고, 이후 멀티모달 언어모델과 AI 에이전트로 평가 대상을 확대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AI 모델과 에이전트의 안전성을 효율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공동 개발한다.

양사는 평가 결과도 공동 검토하고 공개 범위를 협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AI 모델의 위험을 선제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평가 역량을 높이고 글로벌 수준의 AI 안전성 확보와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 구축에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최빛나 기자

M&A 호재 미리 알고 매매… 금융전문가들 200억 부당이득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서울대 동아리·컨설팅회사 인연 가족·지인 등 포함 10여명 연루
근무지·자택 등 20여곳 압수수색
최대 2배 과징금 등 후속조치

서울대 경영동아리 출신 금융전문가들이 수년간 상장사의 공개매수 등 인수·합병(M&A) 관련 미공개정보를 공유하고 20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포착됐다. 이들은 미공개정보를 본인의 주식 매매에 이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족과 지인에게 전달해 매매에 활용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29일 M&A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자들의 근무지와 자택 등 2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핵심 혐의자들은 서울대 경영동아리와 글로벌 컨설팅회사에서 함께 활동하며 인연을 맺었으며, 사모펀드 운용사와 상장회사 등에서 공개매수 등 M&A 관련 업무를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핵심 혐의자는 5명 내외로, 연령대는 30~40대로 알려졌다. 이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장사는 5곳이며, 정보 이용 행위는 5~6차례 이상 반복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이들 가운데



황선호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장이 29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기자실에서 합동대응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신하은 기자

일부는 사모펀드 운용사와 상장사 등에서 임원으로 재직 중에 있다. 가족·지인 등을 포함한 전체 연루자는 10여명 수준으로, 압수수색과 후속 조사를 거치면서 규모가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날 황선호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장은 “특정 개인의 일회성 일탈이 아니라 정보 카르텔 내에서 정보 공유가 장기간 반복됐고, M&A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엄격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는 전문인력이 정보의 원천이었다”며 “최근 약 5년 동안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다수 종목의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상호 공유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다수 종

목의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최근 약 5년간 지속적으로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기 전에 관련 종목을 미리 매수한 뒤 정보 공개 후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미공개정보를 본인들이 직접 이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족·지인에게 전달해 주식 매매에 활용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대응단이 파악한 핵심 혐의자와 가족·지인들의 부당이득 규모는 200억원을 넘어선다.

공개매수 등 지배구조 개편이나 M&A 관련 정보는 공개될 경우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인 만큼, 일반 투자자에게 공개되기 전에 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자

본시장법상 금지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정황이 처음 포착됐다. 합동대응단은 여러 종목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거래와 동일인의 반복적인 연루 정황을 토대로 정보 취득 경로와 공유 관계를 추적했으며, 올해 5월부터 관계기관 공조 아래 조사를 이어왔다.

특히 한 종목에서 발생한 단발성 거래가 아니라 여러 종목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거래 계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혐의자들의 연결고리가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앞서 적발한 NH투자증권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이 참고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사건 모두 금융·자본시장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 집단에서 발생했고, 여러 종목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가 반복됐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10월 공개매수 주관사인 NH투자증권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를 실시했으며, 올해 5월 해당 혐의자를 고발한 바 있다.

합동대응단 관계자는 “두 사건은 별건이지만 전문가 집단에 속한다는 부분이 공통점”이라며 “NH투자증권 사건은 주관 업무를 맡았던 인물이라서 비교적 쉽게 포착할 수 있었지만 이번 사건은 혐의자의 정체와 정보 취득 경로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지속적으로 추적

해왔다”고 말했다. 합동대응단은 압수수색에 앞서 계좌 추적과 공개 자료 등을 토대로 혐의자들의 거래 내역과 인적 관계를 분석해 정보 취득 경로와 연결고리를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과 함께 증권선물위원회는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이 보관된 혐의자의 증권계좌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따른 지급정지 조치를 시행했다.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얻은 부당이득의 은닉을 막고 향후 환수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증거를 분석해 혐의를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혐의가 확인되면 고발과 함께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합동대응단 관계자는 “앞서 공개매수 주관사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압수수색 및 조치를 완료하고, 이번에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정보 카르텔 세력을 적발했다”며 “상장사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우리 자본시장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일반 투자자들이 정보의 비대칭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이찬진 “증권사 실적 늘 때 투자자는 손실”

(금감원장)

23개 증권회사 CEO와 간담회 개최 주주환원·투자자 실질적인 교육 강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증권회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실적 증가에 걸맞은 주주환원과 투자자 보호를 주문했다.

이 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23개 증권회사 CEO 간담회에서 “증권사는 계속 이익을 누리는데 정작 존립기반인 투자자의 상당수는 손실만 본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증권업계는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연간 실적에 육박하는 순이익을 거뒀다. 그는 투자자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증권산업의 미래도 장담하기 어렵다며 업계와 투자자가 함께 성장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증권사가 자본시장 성장의 가장 큰 수혜자인 만큼 주주 가치 제고에서도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증권사가 자사주 소각 등에 나섰지만 시장의 눈높이에는 아직 부족하다며, 배당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증권사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과 주주환원에서 일반 기업에 기준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지난해 코스피 상장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연결 기준 현금배당성향은 미래에셋증권 11.1%, 키움증권 27.1%, 삼성증권 35.5%, NH투자증권 47.3%, 대신증권 51.0%다.

사회공헌 수준도 짚었다. 지난해 국내 증권사의 사회공헌활동 사업비는 잠정 500억

원으로 국내 은행의 2조2000억원에 크게 못 미쳤다. 올해 상반기 별도 재무제표 기준 증권사 37곳의 당기순이익은 8조6000억원으로, 은행 20곳의 13조8000억원과 비교해도 사회공헌 규모가 작다는 지적이다. 이 원장은 법적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데 그치지 말고 투자자가 손실 가능성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엔비디아, 자사주 1500억달러 추가 매입

美 기업 역대 최대 규모

엔비디아가 1500억달러(약 204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추가 승인했다. 한 번에 승인한 자사주 매입 규모로는 미국 기업 가운데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실적 성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주환원도 동시에 강화하는 모습이다.

엔비디아는 28일(현지시간) 이사회에서 기존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에 1500달러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에도 자사주 매입 한도를 800억달러 확대했던 만큼 올해 들어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 자사주 매입 계획을 추가한 셈이다.

이번 결정으로 엔비디아가 향후 자사주 매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된 금액은

기존 미사용분을 포함해 총 2350억달러(약 320조원)로 확대됐다. 추가 승인 규모만 놓고 보면 애플이 2024년 5월 발표한 1100억달러를 넘어선다. 엔비디아는 해당 프로그램을 2028 회계연도까지 순차적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자사주 매입은 회사가 시장에서 자사주식을 사들여 유통 주식 수를 줄이는 방식의 주주환원 정책이다. 매입 규모와 시점에 따라 주당순이익(EPS)을 높이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주가 부양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신하은 기자

ISA 1000만명 돌파… 올해 205만명 증가

가입금액 76조5000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가 1000만명을 넘어섰다. 올해 들어서만 20만명 넘게 늘었고, 가입자의 약 90%는 증권사에서 개설하는 투자중개형을 선택했다. 절세 혜택을 받으며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ISA 확대를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ISA 가입자는 1005만명, 가입금액은 7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 3월 도입 이후 10년 5개월 만에 가입자 1000만명을 돌파했다. 만 19세 이상 성인 인구 약 4407만명을 기준으로 하면 4명 중 1명에 가까운 23%가 ISA 계좌를 보유한 셈이다.

지난 1월 말 가입자가 800만명을 기록한 뒤 7개월 만에 205만명이 추가로 가입했다. 월평균 약 29만명꼴이다. 같은 기간 가입금액도 약 55조원에서 76조5000억원으로 20조원 넘게 늘었다. 금융투자협회는 올해 코스피 상승과 주식시장 참여 확대가 ISA를 통한 투자 수요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가입자가 직접 상품을 골라 운용하는 투자중개형 ISA 가입자는 897만5000명으로 전체의 89.3%를 차지했다. 금융업권별로 증권사 가입자가 900만5000명(89.6%)으로 대부분이었다. 투자중개형은 증권사에서만 개설할 수 있다.

반면 가입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회사가 운용하는 신탁형 가입자는 92만2000명(9.2%)이었다.

/허정윤 기자

신한투자증권, 장애인·1인가구 신탁 출시

의료비·교육비 등 정기 지급 가능

신한투자증권은 장애인과 1인가구 고객의 생애 전반에 걸친 자산관리와 재산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신한프리미어 장애인자립신탁’과 ‘신한프리미어 1인가구 신탁’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신한프리미어 장애인자립신탁’은 장애인이 증여받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신탁재산으로 맡겨 장기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신탁계약에 따라 생활비·의료비·교육비 등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설계할 수 있으며, 부동산의 경우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유지하도록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주식·상장지

수펀드(ETF) 등 유가증권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이나 분배금을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다.

고객 상황에 따라 가족, 친족, 후견인 또는 기관 등을 신탁관계인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상담할 수 있다. 지정된 관계인은 승인된 권한 범위 내에서 생활비 지급 청구 등 필요한 절차를 지원할 수 있다.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최대 5억원(2027년부터 최대 10억원)까지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된다. 다만 신탁 가입만으로 자동 적용되지 않으며, 관련 법령상 요건 충족 및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가 필요하다.

/신하은 기자

해진공, 중소해운업계에 친환경 선박설비 실증 결과 공유

연료절감설비, 풍력보조추진장치
해상실증 결과 공유 세미나 열어
쇄빙선·내빙선 투자 프로그램 마련

해운업계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친환경 선박 설비가 주목받고 있다. 연료절감설비·풍력보조추진장치 등이 그것이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이에 대한 실증 결과를 공개하고 관련 기술 등을 중소업체와 공유한다.

해진공은 이달 30일 부산 중구 한국해사협력센터에서 연료절감설비(ESD) 및 풍력보조추진장치(WAPS)의 해상 실증 결과를 공유하는 세미나를 연다.

이 자리에선 선사와 조선소, 선박 기자재 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실제 선박에서 친환경 설비를 적용한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중소선사의 친환경 설비 도입에 필요한 정보가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의 단순한 소개가 아니다. 공사 관계자는 “선박 운항을 통해 확인한 성능과 검증 결과를 공유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풍력보조추진장치를 탑재한 HMM의 5만 톤급 중형유조선 ‘오리엔탈아쿠아마린호’. /해진공

최근 국제 해운업계에서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선박기술 도입이 늘고 있다. 선박 운항 과정에서 사용하는 연료를 줄여주는 연료절감설비가 대표적이다. 또 바람의 힘을 이용해 선박의 추진력을 보조하는 풍력보조추진장치도 관심을 모은다.

중소선사의 경우, 새로운 설비의 실제 연료 절감 효과와 경제성을 사전에 확인

하기 어렵다. 게다가 자체적으로 실증에 투자할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탓에 기술 도입에 대한 부담을 토로한다.

이에 공사는 세미나에서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선사가 설비 도입 여부를 검토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실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요 세션에서 ▲ESD 해상실증 연구사례 ▲WAPS 해상실증 결과 ▲WAPS

의 현재 기술수준 ▲성능 추정 가이드라인 ▲ESD 3차 검증결과 등이 다뤄진다. 서대식 HMM 책임매니저, 김연식 MOL 코리아 전무, 김상엽 한국선급 책임, 성경현 SB선보 이사, 나무 EnR 김태선 대표 등이 연사로 나선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친환경 선박 기술이 실제 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뿐 아니라 검증된 실증 정보의 공유가 중요하다”라 “이번 세미나가 해운업계가 친환경 설비의 성능과 적용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고, 실질적인 도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사는 ‘쇄빙선·내빙선 투자’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북극항로의 상업항로화를 지원하고 국제선사의 극지 운항선대 구축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북극항로는 기존 항로에 비해 운항거리가 짧아 물류비와 운항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해상운송 경로로 주목받는다. 다만 극지방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쇄빙·내빙 기능을 갖춘 선박이 필수적이다. 일반 선박보다 도입 비용이 높은 데다 상업항로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전까지는 수

익성에 대한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다.

이 프로그램은 초기 선박 확보 부담을 줄이고 북극항로 운항에 필요한 선대(船隊)의 선제적 확보를 돕는 데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는 국제선사가 북극항로 운항을 목적으로 새로 건조하거나 중고로 도입하는 쇄빙·내빙등급 선박 등이 대상이다. 컨테이너선, 벌크선, 탱커, 자동차운반선 등 선종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양한 형태의 극지 운항 선박 확보를 지원한다.

해진공은 프로그램을 연간 1200억 원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다. 선가를 기준으로 후순위 금융에 최대 30%까지 투자한다. 이에 따라 선사는 선순위 금융을 포함해 선가의 최대 90%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후순위 금융은 선순위 금융보다 상대적으로 위험 부담이 큰 만큼, 해진공의 투자를 통해 선사의 선박 확보에 필요한 금융 구조를 보다 안정적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조정지역 2주택, 특례 받으려면 2년째 팔아야

재정부, 세제개편안 후속 시행령
2주택 특례기간 3년 → 2년 단축
내년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조정대상지역에서 기존 집을 보유한 채 새 집을 사들여 한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으려면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매각해야 한다. 특례 적용을 위한 처분 기한이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에 적용해 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는 원칙적으로 내년 말까지만 적용된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거주요건 면제 특례는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된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상속세·증여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달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다음 달 1일 시행에 들어간다.

우선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합리화한다는 취지에서 종전 주택 처분기한을 2년으로 1년 줄이기로 했다.

양도세는 지난달 4일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달 1일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종부세는 지난달 4일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내년 6월 1일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지난달 3일까지 주택을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에 대한 세제 혜택에는 종료 시점을 설정한다. 현재는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 이후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와 법인의 주택 양도 시 추가 과세 배제가 계속 적용

된다.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임대·단기 매입임대 아파트에 한해 원칙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기존 특례를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의 비아파트와 조정대상지역 밖의 아파트, 건설임대·공공지원 임대주택은 기존 특례를 유지한다.

내년 1월 1일 기준 의무임대기간이 끝나지 않은 주택은 등록말소일부터 1년까지 특례를 인정한다. 중과 배제 기한이 끝나기 전에 재건축·재개발 절차가 시작된 경우에는 이전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적용한다.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현행대로 등록말소일부터 5년간 유지한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거주요건 면제 특례는 올해 말 종료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내한 중인 우간다 농촌진흥청·지방정부 공무원 대표단.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 우간다에 K-농업기술 전수

우간다 농진청·지방정부 공무원에
‘농산물 안전·품질관리 역량’ 연수

한국농어촌공사가 우간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농산물 안전과 품질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한다. 교육은 농산물 병해충 관리 및 검역 역량 제고에 중점을 둔다.

29일 공사에 따르면 우간다 농촌진흥청·지방정부 공무원 18명이 이달 하순 한국을 찾았다. 이들은 10월 10일까지 한국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서울시농수산물공공공사 등을 방문한다. 농산물 안전·품

질관리 현장을 살펴보고 교육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우간다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정이다.

올해는 농약 안전관리와 병해충 조사, 수출입 검역 등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올바른 농약 사용 방법과 안전 사용 기준 ▲식물 병해충 방제 기술 ▲시장 접근성 향상을 위한 수출 식품검역 실무 등을 교육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에서는 병해충 동정·예찰과 역학조사 등 실제 검역 절차 및 관련 기술을 공유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폭염·집중호우에도 전력공급 안정적

한전, 집중 특별 점검으로 대응

한국전력(한전)이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국지성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인 설비 점검과 정비로 통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 전국 평균 기온은 25.4℃로 평년보다 1.7℃ 높아 역대 세 번째로 높았으며, 8월 중하순에는 경남 해안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이에 한전은 지난 5월 15일부터 5주간 총 9741명을 투입해 송전설비 4110개, 변전·전차제어 설비 2966개, 배전설비 73만 개 등 총 74만 개의 전력설비를 집중 특별 점검했다.

송·변전 분야에서는 산사태 우려 철탑

1586기와 침수·누수 우려 변전소 538곳의 배수설비를 점검했으며, 열화상·부분방전 진단 등 과학화 장비를 활용해 이상장후를 보인 282건의 부적합 사항을 즉시 조치했다.

배전 분야에서도 여름철 전력사용 증가에 대비해 변압기·저압설비 14만 개 중 부적합 설비 2만 개를 정비하고, 강풍 피해 예방을 위해 전력선 접촉 우려 수목 51만 그루를 정비했다. 지중 저압설비 16만 개를 점검해 3000개를 보강하는 등 기상 상황별 취약 요인을 사전 제거했다.

아울러 한전은 정전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위해 송·변전과 배전 간 통합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원거리 선로 및 무인변전소에 복구 인력과 장비를 전진 배치하는



과학화 장비(부분방전 진단장비)를 이용해 가스절연 개폐장치를 진단하는 모습. /한전

등 현장 대응 역량을 끌어올렸다.

한전 관계자는 “선제적인 설비 점검과 현장 대응으로 올여름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기여했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상재해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AI안경 등 국가자격시험 부정 응시 단속”

산업인력공단, 부정행위 대응 모의훈련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스마트안경 등을 지참해 국가자격시험을 치르는 등의 부정응시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단은 선제적 대응을 위해 29일 울산 국가자격시험장에서 ‘AI 활용 첨단기기 사용 부정행위 대응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에서는 실제 국가자격시험과 유사한 환경에서 스마트안경을 착용하는 등 부정행위 상황을 모의로 설정했다.

시험위원 교육을 비롯해 시험 전 수험자 안내 및 소지품 전수조사, 시험 중 전파탐지기를 활용한 현장 점검 등 단계별

대응 절차가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공단은 AI 기반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지난 8월 ‘AI 활용 부정행위 대응체계 고도화 TF(전담반)’를 꾸렸다. TF는 관련 법령·규정 정비와 시험위원 교육, 상황별 대응절차 강화, 전파탐지기 도입, CCTV 설치 확대,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부정행위 예방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10월 15일까지 ‘AI 활용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대국민 콘텐츠 공모전’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김호연 작가의 밀리언셀러 소설이 공연으로 재탄생

뮤직
드라마

불편한 편의점

Always

24
Times

예매하기



2026.4.3 - OPEN RUN 올웨이즈씨어터

전남광주·울산, 미래차 동맹… AX 등 초광역 협력모델 확대

미래동반성장 우호협약 체결
자동차산업 매개로 강점 결합
‘AI 기반 공장혁신’ 공동 추진

국내 대표 자동차 생산도시인 전남 광주와 울산이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을 매개로 한 ‘미래차 동맹’에 나섰다.

자동차 산업을 넘어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AX)과 재생에너지, 수소·이차전지, 문화관광까지 산업과 지역의 경계를 허문 초광역 상생협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울산시는 28일 통합특별시장 광주시장 비즈니스룸에서 ‘미래동반성장을 위한 우호협약’과 ‘지역대학 간 산업AX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잇따라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과 김상욱 울산시장을 비롯, 전남대·울산대·광주과학기술원(GIST)·울산과학기술원(UNIST)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두 도시는 자동차라는 연결고리로, 울산은 현대차 핵심 생산기지가 자리한 국내 최대 자동차 생산도시고, 광주 역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왼쪽)이 28일 광주시장 비즈니스룸에서 김상욱 울산광역시장과 ‘울산광역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미래동반성장 우호협약 체결식’을 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기아 광주공장을 중심으로 자동차산업이 지역 제조업의 중추를 이루고 있다. 2024년 생산량 기준으로 울산은 154만 대, 광주는 51만대로 화성(53만대)과 함께 국내 톱3 자동차 생산도시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이 같은 전통자동차산업의 강점을 AI와 미래차산업으로 확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우선, 산업 전반을 AI 중심으로 바꾸는 ‘AI 기반 공장 혁신(AID F·AI Defined Factory)’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설계부터 생산·판매에 이르는

제조 전 과정을 AI로 최적화하는 방식이다. 자율주행 분야에선 기술 개발과 실증, 데이터 확보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는 물론 수소와 이차전지 산업도 함께 육성해 자동차와 에너지산업 간 시너지를 높이기로 했다.

산업동맹에 대학들도 함께하여, 전남대와 울산대, GIST와 UNIST는 산업AX 분야 공동연구와 학술·기술교류, 전문인재 양성과 인적 교류를 추진키로 했다. 양 지자체는 대학 간 연구협력이 기업과 산업 현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관계기관 연결을 맡기로 했다.

한편, 산업에만 그치지 않고, 문화와 예술, 체육 교류를 확대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순천만 국가정원과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을 연결한 관광 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이다.

‘자동차’라는 공통 산업기반을 가진 두 도시가 각자의 강점을 결합, AI·미래차·에너지에서 관광에 이르기까지 아우르는 초광역 협력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민형배 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전남광주와 울산은 미래산업과 지역혁신의 동반자로 함께 도약하게 될 것”이라며 “제조 AI 전환과 자율 주행, 재생에너지, 문화교류, 정원 관광까지 폭넓은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초광역 상생발전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상욱 시장은 “양 도시의 협력이 전남광주와 울산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자동차와 AX, 에너지 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의 강점을 연결해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남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경북도와 국회, 관계 지자체 관계자들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예타 통과를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에서 예타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경북도, 무주~대구 고속도로 예타 대응

예타 통과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 개최
국토 균형발전 등 대응 논리 구체화

경북도는 지난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예타 통과를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를 열고 국회와 관계 지자체 등과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세미나는 송언석·정희용·안호영·이진숙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경북도·전북특별자치도·대구시가 공동 주관했다. 김상업 전북연구원 기획경영실장이 ‘무주~대구 고속도로 추진 전략’을 발표했으며, 박종태 경북도 건설도시국장과 전북·대구 도로·교통 분야 국장, 전문가들

이 예타 대응 논리와 정책적 타당성을 논의했다.

경북도는 전북·대구, 5개 기초지자체, 한국도로공사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왔다. KDI가 올해 1월 예타에 착수한 이후 지난 4월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경제성 보안을 위한 정책적 타당성 논리와 산업·관광 자원을 연계한 수요 창출 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관계 지자체, 한국도로공사와 협력해 국토 균형발전과 영호남 상생, 동서3축 국가간선도로망 완성 등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예타 대응 논리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화성시-삼성전자, 미래성장 상생협력 협약

기업활동 과정 행정지원 적극 검토

화성특례시가 삼성전자의 투자·성장을 지원하고 미래첨단산업 경쟁력과 지역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화성특례시는 28일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삼성전자와 ‘미래성장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시 관계자, 김용관 삼성전자 DS부문 경영전략총괄 사장 등 주요 임원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삼성전자 투자 확대와 안정적인 기업활동 지원 ▲연구·업무 기능 확충 및 미래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상생 ▲기업 현안 해결을 위한 부서 협업과 행정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화성특례시는 삼성전자의 투자와 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 지원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왼쪽)과 김용관 삼성전자 DS부문 경영전략총괄 사장이 미래성장 상생협력 업무협약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화성특례시

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 지원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화성시에서 총 1조7000억 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투자 내용과 시기는 사업 여건과 추진 상황에 따라 시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화성(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주낙영 경주시장, 유럽에 신라문화 알린다

프랑스 출국…한불수교 기념행사 참석

주낙영 경북 경주시장(사진)은 29일 프랑스로 출국해 한불수교 14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다.

경주시에 따르면 주 시장은 내달 4일까지 프랑스 파리에 머물며 천년고도와 신라불교 문화를 알리고 도시외교를 펼친다. 이번 5박 7일간의 일정에는 임환 경주시의회 의장과 최진열 시의원, 문화유산과장 등 9명이 동행한다.

오는 30일에는 유럽 최초로 신라를 단독 소개한 국립기메동양박물관과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을 방문해 교류의 시



간을 갖는다.

내달 1일에는 한불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국가유산청·한국문화원과 공동 주최한 ‘석굴암과 천년고도 경주’ 주제의 대규모 문화행사 개막식에 참석한다.

이후 주 시장은 자매도시 베르사유시를 방문해 교류한 뒤, 사찰음식 시연회에 참가한다. 또 국립기메동양박물관에서 다시 신라문화 관련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경주(경북)=김준한 기자

지역 이모저모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

시군의원 재산등록사항 심사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신규 당선 시군의원 287명과 임기 만료로 퇴직한 시군의원 239명 등 총 526명의 재산등록사항을 29일 경기도보와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통해 공개했다.

공개 대상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부동산·예금·주식 등이며 신규의원 287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은 10억5,933만원으로 집계됐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된 재산등록사항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잘못 신고한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시정조치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경기=김예원 기자 ywon@

진도군-농업기술진흥원

첨단농업 연구개발·사업화 추진

진도군이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손잡고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첨단농업(스마트농업)의 현장 확산을 위한 본격적인 협력에 나선다.

진도군은 28일 진도군청에서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농업기술을 공유하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첨단농업(스마트농업) 분야의 포괄적 기술 협력과 표준화 모형(모델) 현장 확산 ▲신품종 종자의 안정적 공급과 이용 확대 ▲연구개발 성과의 현장 확산을 위한 기술이전과 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진도(전남광주)=이대호 기자 eogh7505@

경산시, 생명존중 안심마을 확대

경산시는 28일 경산시립박물관에서 조현일 시장과 지역주민, 생명존중 안심마을 참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가 만드는 생명존중 안심마을 주민참여 선포식’을 개최했다.

경산시는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참여기관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생명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산(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영천시, 시정발전 유공자 표창

영천시는 28일 영천시민회관에서 ‘2026년 3분기 시정발전 유공 표창 수여식’을 열고 지역 사회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29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수상자들은 지역사회 봉사과 주민화합, 환경보전, 생활안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지역 발전에 기여해 왔다.

김병삼 영천시장은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과 함께 더 나은 영천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천(경북)=김준한 기자

산청군, 내달 ‘산청한방약초축제’ 개최

내달 2일 개막식…10일간 진행

산청군은 내달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동의보감촌 일원에서 제26회 ‘산청한방약초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막식은 2일 오후 6시 30분 메인무대에서 열린다. 성리, 솔지, 노라조의 축하공연과 멀티미디어 불꽃쇼가 예정돼 있다. 축제 기간에는 힐링 음악여행, 마당

극, 사일런트요가, 버스킹, 뽕뽕 허준명 의선발전도 이어진다.

특히 올해는 ‘K-웰니스 치유관광 글로벌 비즈니스 서밋’을 열어 외국인 관람객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행사장에는 산청흑돼지구이관과 향토 먹거리가 들어선다. 11개 읍면 로컬 체험존과 60여 개 약초·농특산물·공예 판매장터도 함께 운영된다.

/산청(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쌀쌀한 날씨, 편의점서 따뜻한 군고구마 한 입”

편의점 동절기 상품 전략

군고구마·어묵 사계절 수요 있어 GS25, 고구마 점포 매출 103% ↑ CU, 데워먹는 ‘핫브레드’ 확대 이마트24, 동절기 상품 조기 출시 세븐일레븐, ‘호풍미’ 고구마 판매

겨울철 대표 간식으로 꼽히던 군고구마와 어묵이 사계절 먹거리로 자리 잡으면서 편의점의 동절기 상품 전략도 달라지고 있다. 군고구마·어묵은 연중 판매하는 한편, 큰 일교차에 맞춰 호빵과 방한용품 등 계절 상품 판매는 앞당기는 모습이다. 일부 편의점은 올해 동절기 상품 출시를 지난해보다 한 달가량 앞당겼다.

29일 편의점업체에 따르면 GS25와 CU는 군고구마와 어묵을 연중 판매하고 있다. 과거 겨울철에 수요가 집중됐던 상품이 계절에 관계없이 찾는 간식으로 자리 잡으면서다.

GS25는 고구마 수확과 저장 시기에 맞춰 상품을 달리하며 연중 군고구마를 판매한다. 여름에는 핫고구마를 선보이고, 10월까지 수확한 고구마는 겨울철에 판매한다. 이후 저장·숙성한 물량을 이듬해 봄과 여름까지 공급한다.

올해는 해남과 나주 등에서 약 800t의 군고구마 물량을 확보했다. 올해 1~7월 군고구마 운영 점포의 점포당 하루 매출은



GS25 매장에서 고객이 26년 핫고구마를 고르고 있다.

/GS리테일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했다. 지난 2월 시작한 배달·픽업 서비스에서도 운영 점포 기준 하루 평균 10개 이상 판매되고 있다.

GS25의 군고구마와 봉어빵, 즉석어묵 등 동절기 먹거리 매출도 꾸준히 늘고 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21년 14.7%, 2022년 20.1%, 2023년 46.8%, 2024년 36.1%, 2025년 35%를 기록했다.

CU 역시 군고구마와 어묵을 연중 판매하면서 최근에는 따뜻하게 데워 먹는 ‘핫브레드’ 상품군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1~8월 핫브레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4.1% 증가했다. 이달 1~27일에도 전년 동기보다 84.0%, 전월 동기보다 38.8%

늘었다.

CU는 지난 5월 말 출시해 현재까지 약 80만개가 팔린 히팅 샌드위치 상품군도 확대했다. 이달 히팅빵과 화덕 도우, 생식빵을 활용한 샌드위치 6종을 선보였다.

겨울 먹거리의 계절성이 약해지는 것과 별개로 편의점들의 동절기 준비는 빨라지고 있다. 올해 9월에는 늦더위 속에서도 아침과 낮의 기온 차가 평년보다 다소 크게 나타났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달 1~28일 전국 평균 최고기온은 27.4도, 평균 최저기온은 17.1도로 두 기온의 차이는 10.3도였다. 9월 평년 평균 최고·최저기온 차이인 9.8

도보다 0.5도 컸다. 같은 기간 평균기온은 21.8도로 평년보다 1.3도 높았다.

이마트24는 일부 동절기 상품 출시 시점을 지난해보다 약 한 달 앞당겼다. 지난 18일부터 타이즈와 레깅스 등을 판매하기 시작했으며 다음 달에는 장갑과 귀마개, 경량패딩, 발열내의 등을 추가해 동절기 의류·잡화 상품을 20종으로 확대한다.

군고구마는 지난 19일부터 판매하고 있으며 호빵은 다음 달 초부터 단팥과 고구마 제품을 시작으로 종류를 확대한다.

세븐일레븐도 지난 14일부터 군고구마와 어묵 판매를 시작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군고구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 어묵은 7% 증가했다.

군고구마는 11월까지 수확 직후에도 수분감이 높은 국산 품종 ‘호풍미’를 판매하고, 12월부터 약 3개월간 숙성한 ‘베니하루카’로 전환한다. 다음 달부터는 호빵과 핫팩을 비롯해 기모 타이즈, 장갑, 귀마개 등 방한용품도 순차적으로 선보인다.

편의점업체는 군고구마와 어묵 등 기존 겨울 먹거리는 연중 판매하며 상시 수요를 공략하는 동시에 일교차가 커지는 시기에는 호빵과 방한용품 등 계절 상품 판매를 앞당기고 있다. 계절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겨울 장사도 사계절 판매와 날씨 대응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모습이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metro

현대그린푸드, ‘저속노화 이론·레시피’ 한 권에 담았다

‘천천히 나이드는 식사법’ 출간 헬스케어랩-그리팅랩 집필 참여

현대그린푸드가 저속노화 관련 지식과 조리법을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풀어낸 식생활 가이드북을 선보인다.

현대그린푸드는 다음달 1일 저속노화 이론과 레시피를 한 권에 담은 식생활 가이드북 ‘천천히 나이드는 식사법’을 출간한다고 29일 밝혔다.

식생활 가이드북은 헬스케어랩과 그리팅랩의 연구원 30여 명이 집필에 참여했

다. 헬스케어랩은 식품 영양 데이터와 웰니스 솔루션을 연구하고, 그리팅랩은 케어푸드 레시피 개발을 맡고 있다. 두 부서는 그간 국내 주요 대학 및 상급 종합병원과 공동 임상연구를 통해 다수의 SCI(과학기술논문 색인지수)급 논문을 발표하고 관련 정부과제를 수행하며 전문성을 쌓아왔다.

식생활 가이드북은 ‘이론편’과 ‘레시피편’으로 구성된다. 이론편은 노화의 생물학적 원리를 시작으로 혈당 스파이크 등 대사 조절 방법, 최적의 단백질 섭취 방

법, 당독소 발생 저감법 등 저속노화 이론과 생활 속 실천법 등을 알려준다.

레시피편은 현대그린푸드가 케어푸드 전문 브랜드 ‘그리팅(GREATING)’을 운영하며 개발한 레시피 2000여 종 가운데 저속노화 원리에 부합하면서 최근 트렌드에 맞는 103종을 선별해 실었다. 집에서 손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가정용 계량·조리 도구에 맞게 조리법을 재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식초·설탕·간장 등의 양념의 경우에는 단순 사용량을 표기하는데 그치지 않고, 100% 사과식초·알

룰로스·양조간장 등 식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면서 건강을 생각하는 제품의 사용을 권장한다.

현대그린푸드 박흥진 사장은 “매일 먹는 식사가 노화 속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궁금증에서 출발해, 건강하게 천천히 나이 들기 위한 식사법을 책에 담았다”며 “앞으로도 케어푸드 제조 역량과 연구 노하우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콘텐츠와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GS샵, 천연소재 침구 PB ‘헤리든’ 론칭

내달 5일 GS샵 TV 홈쇼핑서 첫선

GS샵이 천연 소재를 활용한 침구 PB ‘헤리든(HERIDEN)’을 론칭한다고 29일 밝혔다.

헤리든은 ‘변하지 않는 본질적 가치’를 뜻하는 ‘Heritage(헤리티지)’와 ‘휴식과 회복’을 의미하는 ‘Healing(힐링)’을 결합한 이름이다. 천연 소재와 디자인, 국내 생산을 바탕으로 침구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첫 상품은 ‘헤리든 삶아 쓰는 양모 100% 침구세트’다. 충전제로 100% 호주산 양모를 사용하고, 원단은 진드기 차단 테스트를 통과한 고밀도 60수 순면 100%를 적용했다. 양모 침구이면서 이불 전체를 삶아 세탁할 수 있고 세탁기와 건조기 사용도 가능하다. 오는 10월 5일 오후 7시



GS샵이 프리미엄 침구 PB ‘헤리든(HERIDEN)’을 론칭하고 ‘삶아 쓰는 양모 100% 침구세트’를 10월 5일 TV홈쇼핑으로 선보인다. 침구·침대는 실사, 배경은 생성형 AI 활용./GS리테일

35분 GS샵 TV홈쇼핑 방송을 통해 처음 선보인다.

GS샵은 양모 침구를 시작으로 계절과 고객 수요에 맞는 다양한 침구 상품을 선보이며 헤리든을 육성할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하이트진로, 상생투자 스타트업 팁스 선정

쿨베어스, 비전브릿지파트너스 성장 가능성 스타트업 발굴·투자

하이트진로는 직접 투자하고 지원해 온 스타트업 ‘쿨베어스’와 ‘비전브릿지파트너스’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팁스(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에 최종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이번 팁스에 쿨베어스와 비전브릿지파트너스를 추천했다.

팁스는 우수 기술을 보유한 유망 스타트업을 민간 투자자가 발굴해 투자·육성하고, 정부가 연구개발(R&D) 자금 등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2022년 일반 기업 최초로 팁스 운영사로 선정된 하이트진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을 지속 발굴·투자하며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4월 친환경 섬유 소재 기술기업 ‘쿨베어스’가 팁스 답덕트 트랙에 최종 선정됐다. ‘쿨베어스’는 이미 2023년 8월 하이트진로의 추천을 받아 팁스 일반 트랙에 선정된 바 있다. 향후 36개월간 최대 15억원의 R&D 자금을 지원받아 불가사리와 패각을 업사이클링한 친환경 비건 충전제 개발 및 상용화 기술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어 6월에는 K-팝 IP 기반 글로벌 팬덤 플랫폼 ‘하이더(Higher)’를 운영하는 ‘비전브릿지파트너스’가 팁스 일반 트랙에 선정됐다. 향후 24개월간 최대 8억원의 R&D 지원을 바탕으로 AI 기술을 고도화하고 디지털 컬렉션, 실물 상품, 글로벌 커머스 등을 아우르는 사업 영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쿠팡 ‘착한상점’ 전북 소상공인 지원

쿠팡이 중소상공인 상생 전문관 ‘착한상점’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소상공인의 디지털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를 돕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쿠팡 ‘착한상점’은 중소상공인과 지방 농어촌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상생 전문관이다. 누적매출은 약 2000억 원이다.

쿠팡은 지난 2022년부터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하 전북경진원)과 협력해 ‘착한상점’ 내 전북 우수상품 기획전을 운영하고 있다. 전북과 전북경진원을 통해 2022년~2025년간 450여개 전북 업체가 기획전에 참여했다.

참여 업체들은 과일·채소·곡물 등 농식품을 비롯해 패션·뷰티, 생활용품, 반려동물용품, 건강식품, 축·수산물, 인테리 어용품 등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8700여개의 상품을 선보였다.

/김서현 기자

LF ‘헤지스’ ‘바스통’ 세 번째 협업 FW 아우터 컬렉션

LF의 캐주얼 브랜드 헤지스(HAZZY S)가 남성복 브랜드 바스통(Bastong)과 세 번째 협업해 2026년 가을·겨울(FW) 아우터 컬렉션을 선보인다고 29일 밝혔다. 헤지스는 바스통과 앞서 2차례 협업을 진행했다.

이번 협업의 주제는 ‘RE: CLASSICO UTER COLLECTION’이다. 과거의 클래식 아우터에서 영감을 얻되 원형을 그대로 복각하는 대신, 헤지스와 바스통 각각의 감각을 더해 현재의 일상과 취향에 어울리는 클래식 아우터로 재해석했다.

이번 컬렉션에는 바스통이 26FW 시즌 새롭게 선보이는 레더 아우터를 협업 컬렉션에 포함했다. 과거 워크웨어와 빈티지 아웃도어에서 착안한 소재와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발전시켰으며, 협업 최초로 여성 라인까지 영역을 넓혔다.

대표 제품인 ‘TYPE 1 레더 재킷’은 바스통이 26FW 시즌 새롭게 확장한 레더 아우터를 헤지스와 풀어낸 제품이다. 전통적인 레더 재킷의 디자인을 살리면서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서현 기자

동서식품 고슴도치 캐릭터 담은 바삭한 식감의 시리얼



동서식품이 신제품 시리얼 ‘포스트 크리치오 마시멜로’ (사진)를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포스트 크리치오 마시멜로’는 세 겹 구조의 초코 시리얼에 고슴도치 셰프 캐릭터 ‘치오(Cheeo)’ 캐릭터 모양의 마시멜로를 더한 제품이다. 올해 출시 2주년을 맞은 포스트 크리치오는 세 겹 구조로 만들어져 우유와 함께 먹어도 바삭한 식감이 오래 유지되며, 진한 초콜릿 맛을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5가지 곡물과 8가지 비타민을 함유해 우유와 함께 간편한 영양 간식으로도 즐길 수 있다.

/김서현 기자

기술료 받고 임상3상 막바지… K-바이오 ‘안과 신약’ 결실

인제니아, 68억 마일스톤 수령 예정
HLB테라, ‘RGN-259’ 3상 완료
황반변성 등 미충족 의료 수요 커져

K-바이오 기업들이 난치성 안과질환 치료제 분야에서 글로벌 임상 성과 및 기술이전 결실을 잇따라 내놓으며 상업화 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파이프라인의 글로벌 3상 진입에 따른 기술료 유입부터 독자적인 글로벌 3상 막바지 단계 진입, 바이오시밀러의 상업화까지 성과가 다각도로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26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인제니아테라퓨틱스는 지난 25일 글로벌 파트너사 아이바이오로부터 망막질환 치료제 MK-8748(IGT-427) 관련 마일스톤(단계별 기술료) 달성 통지를 받고 인보이스를 발행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마일스톤 달성은 MK-8748의 당뇨병성 황반부종 환자 대상 글로벌 임상 3상 개시에 따른 것이다. 수령 예정 금액



안과질환 파이프라인

/HLB테라퓨틱스

은 500만 달러(한화 약 68억원) 수준으로, 인제니아테라퓨틱스의 전년도 대비 10%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다.

인제니아테라퓨틱스는 일찍이 2022년 10월 아이바이오에 해당 물질을 기술이전 했으며, 2024년 7월 글로벌 빅파마 MSD 가 아이바이오를 완전 인수합병하면서 후 기 임상이 속도감 있게 이뤄지고 있다.

IGT-427은 이중 항체 신약 후보물질

이다. 비정상적인 혈관 생성 등에 관여하는 혈관 내피 성장인자(VEGF)를 저해하면서도 혈관 내피세포 표면에 발현하는 TIE2 수용체를 활성화하는 기전을 갖췄다. 기존 표준치료제인 아일리아, 바비스모 대비 주변 리간드 안지오펀텐1/2(ANG1/2) 농도에 상관없이 TIE2를 직접 활성화한다. 손상된 혈관 내피세포의 빠른 복구와 강력한 지속성을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성과로 인제니아테라퓨틱스는 실적을 개선하고 확보한 자금으로 후속 파이프라인 개발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인제니아테라퓨틱스는 독자 플랫폼 ‘엘씨텍(LCIDEC)’을 보유하고 있다. 엘씨텍은 혈관 내피세포 기능을 조절하는 기술로, 망막 질환은 물론 뇌내장, 만성 신장질환 등으로 적응증을 확장하고 있다. 미세혈관 손상 질환 전반을 아우른다는 방침이다.

안과질환 분야에서의 또 다른 대형 모멘텀은 HLB그룹이 끌어올리고 있다.

현재 HLB테라퓨틱스는 미국 자회사 리젠트리를 통해 진행해 온 신경영양성각막염(NK) 치료제 ‘RGN-259’의 글로벌 임상 3상(SEER-2)에서 마지막 환자 방문을 마치고 통계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오는 11월 주요 결과 도출을 목표로 한다.

RGN-259는 안구건조증, 신경영양성각막염 등 안과질환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다. 재생 촉진 물질인 ‘티모신 베타 4’

펩타이드 성분을 기반으로 한다. 손상된 각막 등에서 항염, 조직 재생, 세포 보호 등 다중 작용해 근본적인 회복을 유도한다.

최근 담관암 치료제 ‘리픽투’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품목허가 승인 성공 소식을 전한 진양온 HLB그룹 의장 역시 이번 임상 결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진 의장은 “HLB테라퓨틱스가 타깃하는 시장 규모가 대단히 크고 글로벌 3상 결과 발표인 만큼 개별 기업 가치는 물론 HLB 그룹 전체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한 제약 업계 관계자는 “황반변성, 당뇨황반부종, 희귀 각막질환 등 안구 질환은 미충족 의료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나는 분야”라며 “실제로 안과질환 시장은 인구 고령화와 함께 각종 디지털 기기 사용 확대, 만성 질환 유병률 증가 등에 영향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인벤티지랩, 초고농도 항체 플랫폼 국제특허

내달 미국 학회서 연구성과 발표
항체 안정성·입자 특성 등 확보

약물전달 플랫폼 기업 인벤티지랩은 초고농도 항체의약품의 피하주사 제형 플랫폼 ‘IVL-BioFluidic’ 관련 기술에 대한 국제특허출원(PCT)을 완료하고, 오는 10월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되는 글로벌 약물전달 학회 ‘PODD 2026’에서 주요 연구성과를 구두 발표한다고 29일 밝혔다.

초고농도 항체의약품 피하주사 제형화 기술은 히알루로니다제 기반 피하주사 제형화 기술을 보완·확장할 수 있는 차세대 플랫폼 기술로 글로벌 빅파마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이다. 특히 고용량 항체의약품을 제한된 투여 부위로 피하주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항체 농도를 높이는 것뿐 아니라 항체의 안정성, 입자 특성, 주사 통침성, 제형의 장기 안정성 및 제조 재현성 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

이 분야에서는 선도 기업들이 일찍부터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면서 기술 및 지식재산권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인

벤티지랩은 이번 PCT 국제출원을 통해 IVL-BioFluidic 핵심 기술의 국제적 권리화를 위한 기반을 확보하고, 향후 관련 특허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기술적 진입장벽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특허뿐 아니라 공정개발과 제조 시스템 구축을 병행해 플랫폼의 기술 경쟁력과 사업화 가능성을 함께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인벤티지랩 관계자는 “2024년부터 초고농도 항체의약품 입자화 기술과 관련한 특허 및 자유실시(FTO) 분석을 진행하며 기술과 지식재산권 측면에서 면밀하게 준비해왔다”며 “플랫폼 공개 이후 글로벌 빅파마들로부터 기술 문의와 추가 데이터 요청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들과의 논의에서도 기술의 적용 가능성과 함께 특허 및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IVL-BioFluidic 플랫폼에 대한 PCT 출원은 향후 글로벌 공동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중요한 기반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PODD 2026은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열리며, 초고농도 항체의약품 제형화 기술과 관련해서는 인벤티지랩, 할로자임, 나노폼 등의 주요 기업 발표가 예정돼 있다. 로슈, 화이자, 존슨앤존슨 등 글로벌 제약사들의 전문가들도 다수 참석해 기술 논의와 파트너링이 활발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인벤티지랩은 학회 첫날인 29일 ‘IVL-BioFluidic : 미세유체공학을 통한 바이오의약품 초고농도 제형 구현’을 주제로 현재까지의 주요 연구결과 및 실제 의약품 개발로의 확장 가능성을 구두 발표하고, 학회 기간 중 글로벌 빅파마를 포함한 복수의 제약사들과 파트너링 미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벤티지랩은 2025년 PODD에서 IVL-BioFluidic 플랫폼을 최초 공개하였으며, 이후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 및 바이오벤처들과 현재까지 총 6건의 물질이전 계약(MTA)을 체결하여 연구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



박성수 대웅제약 대표가 28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소 개소식에서 송도 거점의 비전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대웅제약, 송도에 첨단바이오 거점 개소

난치병 치료제 개발 박차

대웅제약이 인천 송도에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소’를 신설하고, 28일 개소식을 열었다. 정부의 첨단재생의료 육성 정책에 발맞춰 난치성 질환 환자를 위한 근본 치료제 상용화에 나설 수 있도록 본격적인 가동 준비에 들어간다.

인천 송도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내에 위치한 바이오제조소는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무균 제조 및 품질관리 시스템을 갖췄다. 주요 생산 품목은 임상연구용 줄기세포 및 면역세포 제품이다. 대웅제약은 연내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 및 처리를 위한 법적 허가를 완료하고 본격 가동

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웅제약은 그동안 용인 바이오센터를 중심으로 10년 넘게 줄기세포 및 면역·유전자 치료제 연구 기반을 확대해 왔다. 이번 송도 제조소 구축은 그동안 축적한 연구 성과를 환자 대상 임상 단계로 연결하고, 임상연구에 필요한 첨단바이오 물질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웅제약은 국내 거점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도네시아 등 해외 거점과 연계해 연구·임상·생산을 아우르는 글로벌 바이오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세경 기자

셀트리온, ‘글로벌 신약 개발사’ 도약 시동

항암·비만 신약 파트너링 강화

셀트리온은 오는 10월 6일부터 8일(현지시간)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2026 세계 제약·바이오 전시회(CPHI)’에 참가해 글로벌 파트너링 확대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로 37회를 맞이한 CPHI는 생산·공급망 구축부터 위탁개발생산(CDMO), 전략적 제휴에 이르기까지 제약·바이오 산업의 전방위적 협력을 논의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글로벌 전시회다. 이번 행사에는 170여 개국 2400여 개 기업을 대표하는 6만 명 이상의 산업 전문가들이 집결할 예정이다.

우선 셀트리온은 전사적 핵심 과제인



CPHI 2026 셀트리온 단독부스 조감도

‘글로벌 신약 개발사’ 도약을 위해 신약 분야의 파트너링을 한층 강화한다. 최근 항암, 비만·대사질환, 자가면역질환 등 주요 질환을 타깃으로 한 신약 연구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관련 질환 영역에서 협력할 수 있는 유망한 파트너 기업을 집중적으로 모색한다.

/이세경 기자

더후, 안티에이징 연구 13년 결실 담은 공간

롯데백 인천점서 ‘NAD 파워’ 행사

13년간 축적한 차세대 안티에이징 연구 결실을 피부로 직접 확인하는 고품격 뷰티 체험 공간이 열린다. LG생활건강은 오는 10월 6일까지 롯데백화점 인천점에서 더후 ‘더 파워 오브 NAD’ 행사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궁중 피부과학력서리 코스메틱 더후의 브랜드 대표 제품군 비첩 등에 집약한 LG 생활건강만의 기술력을 소개한다는 방침이다. 비첩 NAD 파워 앰플의 경우 독자 성분 ‘NAD 파워24’를 50% 고함량으로 담고 있다. 단 한 방울, 약 0.019ml에 약 550억 개의 미세 리포좀 입자를 응축해 피부에 빠른 효과를 전달한다.

/이청하 기자

“R&D 관세 감면 폐지, 연구비 부담 커져”

바이오협회, 관세법 개정안 분석

정부가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제도를 오는 2027년부터 전면 종료하기로 하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주요국들이 연구개발(R&D)용 물품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확대하는 흐름과 달리 국내 세제 개편이 기업의 R&D 부담을 가중시키고 첨단 산업 중심의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어서다.

29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는 정부가 지난 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한 ‘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분석을 발표했다.

정부 개정안은 오는 2027년 8월 1일부터 학교나 공공의료기관용 물품 감면은 유지하되 기업 대상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감면만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한 세수 증가액은 향후 5년간 450억원으로 추정된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수입 시 부과되는 세목 중 부가가치세와 관세의 구조적 차이점을 제시하며 이번 조치가 바이오 기업에 미칠 파장을 경고했다.

/이청하 기자



#5 이승연 님의 이야기

“어르신들이 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게
귀 기울여 듣고, 차근차근 설명해 주면 좋겠어요.”

고객의 이야기를 듣고 상담의 속도를 맞춰갑니다

AI기술을 통해
간단한 상담은 빠르게 해결하고

상담사는 고객의 감정에 더 공감하고
쉽고 천천히 상담할 수 있도록

‘서비스품질지수 콜센터 부문 전 산업군 1위’
유플러스가 진심 어린 상담으로
가장 감동적인 고객센터를 만들어갑니다

고객 경험을 심플하게

Simply. U+



2026년 KSQI 콜센터부문 전 산업군 1위,
통신업계 유일 2년 연속 고객감동콜센터 (KMAC 선정)

고객님의 안전한 통신 생활을 위해 전국 매장 및 홈페이지에서 유심 업데이트 무료 교체가 진행 중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LG 유플러스
백유진 상담사

이 광고는 실제 유플러스 상담사의 모습을 활용해 AI로 제작되었습니다



효성그룹, 경력보유여성 재취업 지원

효성그룹이 경력보유여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돌봄 분야 직무교육을 지원한다. 효성그룹은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여성중앙회에 경력보유여성 취업활성화 지원금 7000만원을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원금은 중·장년 여성을 위한 요양보호사와 시니어케어 전문가 양성 과정 운영에 쓰인다. /효성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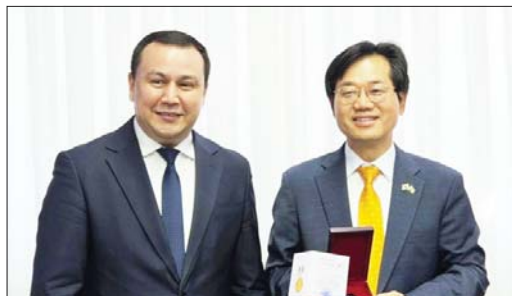
신한금융, 한일 기후금융 협력 논의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한·일 양국의 친환경금융과 탄소시장, 디지털금융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연세대학교 환경금융대학원과 한국녹색금융포럼이 주관하고 신한금융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아시아의 신뢰할 수 있는 기후금융 인프라 구축'을 주제로 열렸다. /신한금융그룹



NH농협은행, 폐전자제품 모아 자원순환 실천

NH농협은행은 서울 중구 본사에서 임직원들의 일상 속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하고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내(NH) 사람 속 자원순환 캠페인' 행사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임직원들이 가정이나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폐전기·전자제품을 자발적으로 배출하고 자원순환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NH농협은행



KCL 천영길 원장, 우즈베크 대통령 훈장 수훈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천영길 원장이 우즈베키스탄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훈장을 받았다. KCL은 28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대통령 훈장 수훈과 함께 우즈베크 내각 산하 기술규제청(UATR)과 '재생에너지 설비 국제공인시험기관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KCL

인사 ◆메트로미디어◇전보 △편집국 건설부 동산부 차장대우 이현진
◆구미시◇4급 승진 △문화체육관광국 박향목◇5급 승진 △회계과 박미라 △민원봉사과 윤선목
◆CBS△장관순 콘텐츠본부 보도국 정치부장 △박종관 콘텐츠본부 보도국 사회부장 △김중호 콘텐츠본부 보도국 정책부장

부음 ▲조학순(향년 91세)씨 별세, 강희정(방송작가)씨 모친상, 권철철(경인방송 전 회장)씨 장모상 = 29일, 인하대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10월1일 오전 8시, 장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032-890-3180

이재용·최태원·젠슨 황, 뉴욕서 'AI 동맹' 재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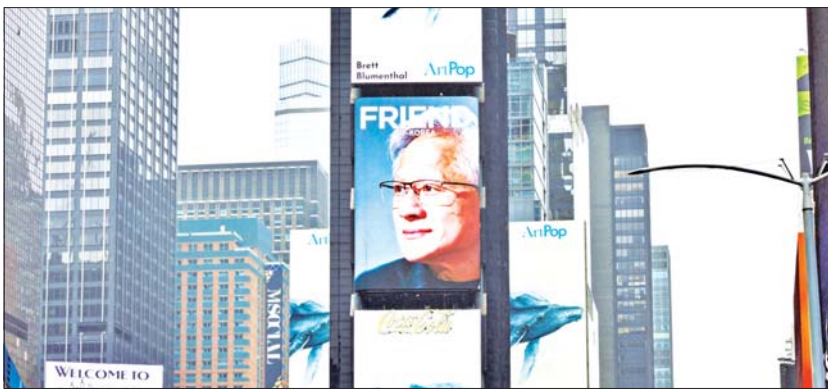
벤 플리트상 행사서 두 달 만에 재회 삼성·SK, 엔비디아와 AI 협력 강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그룹 회장,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두 달 만에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세계 AI 산업의 핵심 축으로 부상한 엔비디아와 한국 반도체를 대표하는 삼성전자·SK의 수장이 뉴욕에서 AI 동맹을 재확인했다.

아들이 만난 장소는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코리아소사이티어 연례 갈라 행사였다. 지난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난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이날 젠슨 황 CEO가 2026년 벤 플리트상을 수상하자 이 회장과 최 회장은 직접 축하에 나섰다.

이 회장은 행사에서 황 CEO와 약 25년 전 CES에서 처음 만난 인연을 소개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에서 함께하는 파트너이자 오랜 친구"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회장은 삼성전자와 엔비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28일(현지시간)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벤 플리트상 수상을 축하하는 삼성전자의 영상이 디지털 전광판을 통해 송출되고 있다. /삼성전자

아가 모두 AI에 '올인'하고 있다는 점을 양사의 공통점으로 꼽았다. 고(故) 이견희 삼성 선대회장이 20년 전 같은 상을 받은 사실도 언급하며 "미국과 한국 사이의 진정한 파트너십과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가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고 말했다.

재치 있는 발언도 이어졌다. 이 회장은 자신과 황 CEO의 공통점으로 AI, 두 사람의 딸 이름이 '매디슨'이라는 점에 이어 "우리 모두 갤럭시 Z 폴드8을

사랑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황 CEO의 벤 플리트상 수상을 축하하는 영상을 송출하며 별도의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영상은 젠슨 황 CEO를 상징하는 'Pioneer(개척자)', 'Architect(설계자)', 'Builder(건설자)', 'Friend(친구)' 등 네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그의 주요 활동과 업적을 역동적으로 소개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가상의 전시 공간을 배경으로 젠슨 황 CEO의 주

'청렴골든벨'로 윤리의식 제고

소진공, 임직원 30명 결선 진출 사례 중심 퀴즈로 부패 리스크 점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제3회 'SEMAS 도전! 청렴골든벨' 결승전을 열고 임직원의 청렴윤리 의식 제고를 위해 나섰다. 29일 소진공에 따르면 청렴골든벨은 기존 주입식 법령 암기 교육에서 벗어나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는 서바이벌 퀴즈 프로그램 형식으로 기획했다. 특히 실제 업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 중심 문항을 출제해 실효성을 크게 높였다.

이번 대회는 예선·본선·결선으로 3단계 서바이벌 방식으로 진행했다. 전 직원의 예선을 거쳐 부서 및 지역 본부 대표로 선발된 최종 30명이 결선에 올라 치열한 퀴즈 대결을 펼쳤다.

특히 임원진의 적극적인 출전수범이 눈길을 끌었다. 본부 임원들이 직접 결선전에 참여한 가운데 인태용 부이사장과 김유오 상임이사는 국가청렴관의 교육원의 '청렴 내부강사 자격'을 사전 취득한 후 출전에 마지막 문제까지 맞히며 청렴 리더십을 보였다.

결선에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 방지법 ▲임직원 행동강령 등 주요 반부패 법령 및 윤리규범 관련 총 15문항이 출제됐다. 접전 끝에 선정된 최후의 3인에게는 이사장 상장과 함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 돌아갔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골든벨을 통해 전 직원이 일상 업무 속 부패 리스크를 재인식하고 자율적인 청렴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국립공원 '명품 탐방해설' 내달 무료 개방

전국 16개 국립공원 22개 프로그램 생태탐사·이색문화 체험 등 운영

국립공원의 고유한 자연 자원과 독창적인 체험을 결합한 고품격 생태 탐방 프로그램을 10월 한 달간 비용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전국 16개 국립공원사무소와 생태탐방원에서 운영하는 '국립공원 명품 탐방해설 22선'을 10월 한 달 동안 전액 무료로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평상시 생태탐방원의 해설 프로그램은 1인당 교육비 5500원~1만1000원으로 유료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관람 위주의 탐방에서 벗어나 깊이 있는 생태 체험과 치유를 추구하는 탐방객의 수요를 반영해 기획됐다.

프로그램은 취향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생태·탐사(8개) ▲치유·회복(9개) ▲이색·문화(5개) 등 3가지 주제로 나뉜다.



치악산사무소 변금숙 해설사의 '초록 위로: 숲, 마음을 쉬게 하다' 프로그램. /국립공원공단

'생태·탐사형'에서는 한려해상에서 어미와 새끼 멸종위기종을 관찰하는 '야생 상괘이 탐사' 등이 운영된다.

'치유·회복형'은 치악산 초록위로: 숲, 마음을 쉬게 하다' 등 숲과 계곡을 활용해 휴식을 취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색·문화형'에서는 청각장애인과 함께하는 지리산 수어 해설 및 생태·산악 안전 체험, 정음 전통 특산품을 활용한 내장산의 '불멸의 쌍화차' 등이 눈길을 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에몬스, 전도연과 18년 동행 '프로모션'

소파·침대 대표제품 특별가 전국 매장서 11월 30일까지

에몬스가 오랜 기간 파트너십을 이어온 전속모델 배우 전도연 주연작 수상을 축하하기 위해 오는 11월30일까지 전국 매장에서 '18년 동행 축하 페스타'를 연다.

29일 에몬스에 따르면 회사와 전도연의 인연은 2008년부터 시작해 올해까지 18년 동안 단 한 번의 끊김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광고 시장에서 한 브랜드와 모델이 18년간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동행하는 것은 국내 가구 업계는 물론 대한민국 광고계 전체에서도 극히 드문 모범 사례로 손꼽힌다.



에몬스X전도연 19년 동행 감사페스타.

이번 프로모션에선 올해 최신 TV C F '좋은 휴식은 에몬스롭게'에 등장한 전도연의 시그니처 소파 및 프리미엄 침대, 매트리스 등 대표 가구 라인업을 특별 혜택가로 선보인다.

/김승호 기자

농심 '신라면 로제', 유럽시장 첫선

세계 식품박람회 '시알' 참가

농심이 17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식품 박람회 '시알 파리 2026(SIAL Paris 2026)'에 참가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알 파리는 1964년 시작해 2년마다 열리는 글로벌 식품 전문 박람회로, 세계 각국의 식품기업과 유통 바이어가 한자리에 모

여 제품 홍보와 수출 상담, 식품산업의 새로운 트렌드를 경험하는 자리다.

농심은 이번 박람회에서 신라면의 글로벌 슬로건 'Spicy Happiness In Noodles'를 테마로 신라면 부스를 운영한다. 박람회장 6홀 한국식품산업협회 선도기업관에 실내 부스를 차리고 '신라면 로제'를 유럽 시장에 처음으로 선보인다. /김서현 기자 seoh@

61주년 연고전, 내달 2일 잠실서 개막

이틀간 잠실·목동서 5개 종목 열전

고려대와 연세대가 서울 잠실과 목동 일대에서 61주년 정기전을 개최한다. 고려대는 오는 10월 2일부터 3일까지 '2026 정기 고려대학교·연세대학교 친선 경기대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고려대가 주최하는 올해 연고전은 2일 오전 10시 잠실야구장에서 개막식을 시

작으로 막이 오른다. 오전 11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야구 경기가 열리고, 오후 3시 잠실학생체육관에서는 농구 경기가 이어진다. 오후 5시에는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아이스하키 경기가 진행된다.

3일에는 목동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경기가 이어진다. 오전 11시 럭비에 이어 오후 2시 축구 경기를 끝으로 정기전 일정이 마무리된다. /김수정 기자 krsyul@

제4회 2026 글로벌 ACX 초월대상

접수기간 연장 공고

보다 많은 우수 SW·AI 제품·서비스, AI 활용 우수사례 및 혁신 인재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접수기간을 연장합니다.



접수마감 연장

~~2026. 9. 30.(수) 18:00~~



2026. 10. 16.(금) 18:00



시상

2026년 11월 말 예정

2026년 9월 29일

한국SW·ICT총연합회 회장 이 우 용



시상 개요

정부의 AI 대전환(AI) 정책에 부응하여, 기술 혁신과 실제 성과 창출에 기여한 우수 SW·AI 제품·서비스, 모범적·혁신적 AI 활용 사례, 기술 연구개발(R&D) 및 현장 도입·활용 확산에 기여한 인재를 발굴·포상



주최/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SW·ICT총연합회, 전자신문, 메트로경제



후원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시상 부문

시상 부문	시상 대상
제품·서비스 부문	우수 국산 SW·SaaS·AI 제품 및 서비스
AI 활용 우수사례 부문	모범적·혁신적 AI 활용 사례(적용 업무·프로세스 및 시스템)
인재 부문	기술개발 및 현장 도입·활용 확산에 기여한 개인



AI 활용 우수사례란?

AI 기술을 실제 업무 또는 산업 현장(공공·민간)에 적용하여 혁신적인 성과와 가치를 창출한 사례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춘 사례를 의미합니다.

- ✓ AI를 적용하여 업무·프로세스의 효율성, 서비스 품질, 생산성 등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한 사례
- ✓ 국민·고객 편의 증진, 비용 절감, 매출 증대, 안전·환경 개선 등 정량·정성적 성과가 확인되는 사례
- ✓ 타 기관·기업으로의 확산·적용 가능성이 높고 사회·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사례
- ✓ AI 윤리·신뢰성·보안 등 책임 있는 AI 원칙을 준수한 사례



시상 내역

총 13점 내외
(예정)

구분	시상 내용
부총리상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장관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기관장상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상,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상,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상,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상, 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언론·단체장상	메트로경제, 전자신문, 한국SW·ICT총연합회장



신청 안내

- 접수마감 : **2026. 10. 16.(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한국SW·ICT총연합회 이메일 접수 | 이메일 : awards@kswict.or.kr
- 제출서류 : 부문별 포상 신청서, 공적조서 및 관련 증빙서류 등
- 시 상 : **2026년 11월 말 예정**
※ 신청 자격, 제출서류 작성방법, 세부 심사기준 및 관련 서식은 「제4회 2026 글로벌 ACX 초월대상 안내서」 참조
※ 안내서 및 신청 관련 서식은 한국SW·ICT총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다운로드



심사 절차

심사위원회
구성

1차 심사
(요건심사)

2차 심사
(전문심사)

최종 심사
(공적심사위원회)

시상



문의사항

한국SW·ICT총연합회 사무국 | Tel. 02-858-8510

※ 본 공고는 2026년 8월 28일 최초 공고의 접수기간 연장 사항을 반영한 안내입니다.

가족돌봄 부담과 간병살인이 경고하는 것



전 용 호 교수의
龍虎相生 복지이야기

노인돌봄에는 공식서비스만으로 보이지 않는 거대한 영역이 있다. 배우자와 자녀가 식사를 챙기고 병원을 동행하며 노인의 곁을 지키는 '비공식돌봄' (informal care), 즉 가족돌봄 또는 무급돌봄이다. 어느 나라에서나 장기요양체계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다. 주변의 중장년층만 봐도 그 무게를 쉽게 알 수 있다. 노부모가 차매나 뇌졸중에 걸리면 배우자가 먼저 돌보고, 그 한계를 자녀가 메운다. 특히 딸과 며느리, 아내 등 여성에게 돌봄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다. OECD에 따르면 비공식돌봄자의 약61%가 여성이다. 한국에서도 여성의 무급 가사·가족돌봄 시간은 남성 보다 훨씬 길다. 가족을 지탱해 온 이들의 시간과 수고는 막대하지만, 이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휴식·소득·노후까지 지원하는 체계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더 큰 문제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늘지만 돌봄을 제공한 가족의 역량은 줄어든다는 것이다. 2025년 65세 이상 인구는 1051만 명, 전체 인구의 20.3%에 이르렀다. 장기요양 인정자도 2021년 약 95만 명에서 2026년 6월 127만5000 명으로 늘었다. 반면에, 저출산으로 자녀 수와 가족 규모는 줄고 노인을 돌보려는 부양의식도 약화되고 있다. OECD도 가족 규모 축소와 여성 경제활동 증가 등으로 비공

식돌봄 공급이 감소할 가능성을 지적한다. 그 한계가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간병살인'이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2007~2023년 유죄가 확정된 간병살인 228건을 분석한 결과, 75.8%가 다른 가족의 지지 없이 혼자 독박으로 간병한 사례였고 25.4%는 범행 후 자살을 시도했다.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간병살인은 때로 끝이 보이지 않는 힘든 간병의 긴 터널을 극단적인 방식으로 끝내려는 절망의 표출이다. 이는 몇몇 가족의 비극을 넘어 비공식돌봄의 지속가능성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경고다.

가족돌봄자의 지원에 한국은 매우 소극적이다. 영국은 가족돌봄자의 지원욕구를 별도로 평가하고, 독일은 일정 요건의 가족돌봄자에게 연금보험과 대체돌봄을 지원한다. 덴마크는 지방정부가 재가돌봄을 책임지면서 가족이 지쳤을 때 다른 사람이 돌봄을 대신하거나 일정 기간 별도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족이 돌보더라도 모든 책임을 가족에게 떠맡기지 않는 것이다.

한국도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확대했지만 가족의 장기적인 부담을 덜기에는 부족하고 이용 실적도 미비하다. 더 근본적으로는 줄어드는 비공식돌봄을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같은 '공식돌봄'이 적극적으로 대체해야 한다. 방문요양·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의 공급과 서비스 품질도 높여야 한다. 몇 시간의 서비스 뒤 나머지 시간을 다시 가족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방식으로는 중증의 치매나

와상의 노인을 감당하기 어렵다.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생각도 바뀌야 한다. 재정을 적게 쓰는 것이 지속가능성은 아니다. 공식돌봄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으면 절약된 비용은 가족의 돌봄시간 증가, 노동시장 이탈, 소득 감소와 건강악화라는 사회적 비용으로 옮겨간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제도의 지속가능성'이다. 보험재정이 안정돼 있어도 가족이 돌봄 때문에 직장과 건강, 노후를 잃는다면 그 제도는 지속 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 장기요양보험은 재정을 아끼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운 돌봄위험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기 위한 사회보험이다.

공식돌봄 확대에는 반드시 재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448%로 소폭 인상됐다. 이제는 앞으로 보험료를 어느 수준까지 더 부담하고, 그 재원을 돌봄시간·인력·품질 확대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사회적으로 적극 논의해야 한다. 낮은 보험료의 대가를 가족의 시간과 건강으로 치르는 것은 비용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숨기는 것이다. 이제 질문은 '가족이 언제까지 버틸 것인가'가 아니다. 가족이 감당할 수 없게 된 돌봄을 공식돌봄이 얼마나 충분히 대신할 수 있는가가 되어야 한다.

간병살인은 심각한 경고음이다. 재정을 덜 쓰는 제도가 아니라 돌봄 때문에 가족이 무너지지 않고 노인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제도, 그것이 지속가능한 장기요양보험이다.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넥스트케어(돌봄혁신허브) 대표

국가 안보엔 與野가 없다



기지 수첩
박 경 수
(정치부)

나라를 지키는 군복에는 어느 정당의 이름도 새겨져 있지 않다. 국군 장병들은 자신이 지키는 국민의 지지 정당을 묻지 않는다.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정치도 그해야만 한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의 원인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아군의 지뢰 매설 기록이 없고, 부상 장병의 장구류에서 트리니트로톨루엔(TNT) 성분과 갈색 이물질이 검출됐지만 철제 파편은

나오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군의 발표로 북한군 지뢰에 의한 피해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앞으로 정치권이 집중해야 할 것은 남은 의문을 밝히고 필요한 대응을 마련하는 일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강신철 국방부 장관에게 북한이 새롭게 매설한 지뢰에 의한 폭발이라면 명백한 침략 행위라며 강경 대응을 요구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장병과 군의 안전을 위해 투명하고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다.

두 요구는 함께 충족돼야 한다. 철저한 조사가 책임 있는 대응의 근거가 되고, 후속 조치가 있어야 원인 규명도 의미를 갖는다.

정부와 군은 지뢰의 실체와 매설 경위를 마지막까지 규명해야 한다. 조사·보고 과정

에서 언제 무엇을 파악했고 어떤 판단에 따라 조치했는지도 설명해야 한다. 북한의 책임을 묻는 일과 우리 군의 대응에 빈틈이 없었는지 점검하는 일 역시 필요하다. 야당의 의혹 제기도 근거에 충실해야 한다. 장 대표는 조사 지연과 사고 축소·은폐 의혹을 대통령의 지시와 연결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이를 지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장조사 착수와 중간 조사 결과 발표까지 시간이 걸린 이유, 그 사이 어떤 보고와 지시가 오갔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여당 역시 말에 그쳐서는 안 된다. 투명한 조사와 책임 있는 대응을 주문했다면 실제 조사 과정과 후속 조치도 끝까지 살펴야 한다.

/gws0325@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30일 (음 8월 20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모든 것은 시와 때가 있는 법입니다. 60년생 주의 깊은 통찰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72년생 원하는 일은 빨리 이루어집니다. 84년생 굳건한 마음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49년생 어렵게 일을 풀어 나가게 됩니다. 61년생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73년생 분수에 넘치는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85년생 귀한 손님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50년생 의지할 곳이 없으니 외롭고 서러운 마음입니다. 62년생 건강에 유의하세요. 74년생 사업에서 방심은 금물입니다. 86년생 남의 말을 너무 그대로 믿지 마세요.

51년생 단시일 내에 이루려는 꿈은 불길합니다. 63년생 반드시 길하게 됩니다. 75년생 순리에 따르도록 하세요. 87년생 눈앞에 보이는 이윤에 뛰어들려 하지 마세요.

52년생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면 좋습니다. 64년생 안정된 자세로 천천히 자신의 길을 가세요. 76년생 운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88년생 생각한 바를 자신 있게 밀고 나가세요.

53년생 모든 것을 순서대로 차근차근 하세요. 65년생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77년생 유혹에 흔들리지 마세요. 89년생 안정을 취하며 조금 여유를 갖는 게 좋을 합니다.

54년생 단순한 놀이에 목숨 걸고 달려들지 마세요. 66년생 거짓말은 신용을 잃게 하는 것이니 삼가하세요. 78년생 만물엔 이치가 있는 법. 90년생 순리에 역행하는 생각은 멀리하세요.

55년생 돌아오는 것이 큰 것이라 길운입니다. 67년생 뜻밖의 재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79년생 이곳 저곳에서 이익을 들이느라 바쁩니다. 91년생 남쪽에 좋은 인연이 있습니다.

56년생 시비에 가담지 마세요. 68년생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80년생 노력에 공전하고 손실이 있겠습니다. 92년생 약속을 지켜라. 불가하면 사전에 양해를 얻어 구설을 차단하세요.

57년생 사람을 심판하는 것은 길하지 못합니다. 69년생 김한운의 절정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81년생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세요. 93년생 유쾌한 하루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58년생 뒤로 자빠졌는데 코가 깨지는 격입니다. 70년생 의지할 곳이 없으니 외롭고 서러운 마음입니다. 82년생 안정을 취하고 힘을 비축 하세요. 94년생 건강에 유의 하세요.

59년생 가정에 경사가 있어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71년생 불의를 멀리하도록 하세요. 83년생 여기저기 자랑을 늘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95년생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김상회의四季 명예로운 이름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아주 익숙한 속담이니 호랑이는 죽은 뒤에 멋지고 귀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은 뒤에 자신의 이름과 업적을 세상에 남긴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살아 있을 때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후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기억하게 된다는 의미가 함께 담겨 있다. 사람은 욕망이 크다. 존중받고 싶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싶고, 자기가 살아온 삶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란다. 명예를 돈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돈은 자녀에게 물려줄 수도 있고 쓰면 없어지지만, 명예는 자신의 이름과 함께 오래 남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원한다고 해서 누구나 존경받고 명예로운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다. 누구는 갖은 애를 써도 명예를 얻지 못하고 누구는 뜻하지 않게 후세에 명예로운 이름을 남기기도 한다.

상당하다 보면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이나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에게서 명예에 관한 조바심 넘치는 질문을 받곤 한다. 명예라는 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잘 알기에 더 조바심을 낸다. 명예도 사주팔자의 영향을 받는데, 명식에 따라 명예를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한다. 명예를 얻는다고 해도 자기 그릇의 크기에 따라 유지하는 힘이 다르다. 관성이 강한 사주는 명예와 관련한 기운이 좋다고 본다. 사주에 관성이 어떻게 자리하고 있느냐에 따라 조직에서 또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 정관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사주는 별다른 노력 없이 명예를 얻기도 한다. 문제는 지나친 욕심이다.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집착할 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명예는 욕심낸다고 얻어지지 않는다.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하다 보면 저절로 이름이 남는다. 지나친 욕심은 명예를 허영으로 만들고, 허영은 때로 망신으로 돌아온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6004호	
일간 메트로경제 <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108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상가 비는데 원룸 구하기는 별따기… 엇갈린 대학가 풍경

현장르포

신촌·이대 1층 상권 공실률 12.4%
유학생·직장인 등 거주 수요 늘어
이화여대 인근 월 주거비 87만원

대학가 인근에서 방을 구하려는 사람들은 줄을 서지만, 바로 옆 상가에는 '임대' 안내문이 잇달아 눈에 띈다. 신촌·이대 대학가는 늘어난 주거 수요와 좁혀질 회복되지 않는 상권이 한 공간에서 엇갈리고 있었다.

연고전을 앞둔 29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푸른 현수막이 건물 사이를 가로지르고 있었다. 그 아래 상가 풍경은 사뭇 달랐다. 연세로를 따라 걷자 1층 통유리를 절반 가까이 가린 노란색 '임대' 안내판이 눈에 들어왔다. 지하철 2호선 신촌역 출구 맞은편에는 건물 꼭 만한 '신촌부지 매매'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불이 꺼진 점포와 잠긴 유리문도 나타났다. 연세로 한편의 대형 점포는 유리문이 붉은 쇠사슬로 잠겨 있었다.



연고전(고려대학교·연세대학교·친선경기대회)을 앞둔 29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에 응원 현수막이 걸려 있다. /성채리 기자

올해 2분기 신촌·이대 상권의 일반상가 공실률은 12.1%로 서울 평균(9.4%)을 웃돌았다. 특히 눈에 가장 잘 띄는 1층 공실률은 12.4%로 서울 평균(4.8%)의 두 배를 넘었다.

그렇지만 주거시장은 다른 모습이다. 학생들이 살 방은 귀해지고 월세 부담은 커지고 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주요 10개 대학 인

근 전용면적 33㎡ 이하 원룸의 월세와 관리비는 보증금 1000만원 기준 평균 70만 9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 올랐다. 이화여대 인근은 월 주거비가 87만원으로 조사 대상 중 가장 높았다. 연세대 인근 원룸의 평균 월세도 67만 8000원으로 1년 전보다 10.4% 상승했다.

외국인 유학생과 직장인까지 대학가 주택을 찾으면서 제한된 원룸과 오피스텔을

두고 여러 수요층이 겹치고 있다는 게 현장의 설명이다.

먼저 국내 대학을 찾는 외국인 학생이 빠르게 늘고 있다. 교육부의 '2026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인 학생은 30만 7464명으로 2023년 18만 1842명보다 69.1% 증가했다.

해외에서는 서울의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비가 유학생을 끌어들이는 요인 중 하나로 평가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파리 등 기존 유학도시의 임대료가 크게 오르면서 서울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안으로 떠올랐다고 보도했다. 파리 스튜디오의 중위 임대료가 월 200만원을 웃도는 데 비해 서울 원룸 월세는 90만원 안팎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방 문의가 늘었다고 전했다. 단기간 머무는 교환학생뿐 아니라 어학당을 다니며 장기간 체류하는 유학생도 많다는 설명이다.

직장인 수요도 대학가 주거시장을 떠날치고 있다. 광화문과 종로, 여의도 등 업무지구로 이동하기 편한 데다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서다.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광화문이나 종로, 여의도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많고 세브란스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방을 찾는다"고 설명했다.

B공인중개업소 관계자도 "학생이나 직장인이 이쪽으로 들어오고 싶어 한다"며 "학교가 여러 곳 있고 직장인 수요까지 있어 방이 나오면 금방 계약되는, 소위 '줄서는 동네'라고 말했다. 그는 "세입자들이 주로 문의하는 월세는 100만원 안팎"이라며 "취업한 뒤 대출을 받아 월세에서 전세로 옮기려는 청년이 많다"고 전했다.

서울대입구역 인근 대학가도 비슷한 모습이다. 2020년 입학 때부터 서울대입구역 원룸에 거주한 직장인 유채원씨는 취업 후에도 같은 곳에 살고 있다. 유씨는 "직장까지 20분 정도면 갈 수 있고 업무 특성상 여러 곳으로 출근할 때가 많은데 서울대입구 만큼 교통이 편한 곳을 찾기 어렵다"며 "주변에도 서울대입구나 낙성대에 살다가 취업한 뒤 그대로 거주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성채리 기자

cr56@metroseoul.co.kr



metro

‘고분양가 논란’ 서울 외곽단지, 몸값 급등

일부 미분양 단지도 이제는 ‘푼귀’
서울원아이파크, 올해 4억 이상 상승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호가 15억

서울 집값이 외곽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고분양가 논란을 빚었던 분양단지 수억원의 프리미엄이 붙었다. 일부 단지는 미분양으로 수차례 무순위 청약까지 갔지만 이제는 '자카베'를 내고도 매물이 없어 못 사는 상황이다.

2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노원구 월계동 '서울원아이파크'는 국민평형인 전용 84㎡의 분양권이 18억 6245억원에 거래되며 18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14억원 안팎에서 거래되던 것이 올해 들어서만 4억원 넘게 올랐다.

월계동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을 통해 공급된 서울원아이파크는 공동주택 1856가구, 공공임대 408가구, 레지던스 768실 등 총 3032가구 규모다. 당시 분양가는 평형 최고가 기준 14억원으로 당시 노원구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전경. /뉴스시

역대 최고가였다. 대형 평형의 분양가는 최고 30억원을 웃돌면서 서울원아이파크는 임의공급 공공가 5차까지 나왔다.

구로구 고척동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는 지난 7월 전용 59㎡의 분양권이 12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프리미엄은 2억 3000억원으로 알려졌다.

고척 4구역을 재개발한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는 전용 39~114㎡, 총 983세대 규모다. 작년 5월 분양 이후 전매제한 기간 1년이 지나면서 분양권 거래가 시작됐다. 분양가는 평형별 최고가 기준으로 전

용 59㎡와 84㎡가 각각 10억 240만원, 12억 4060만원이었다. 당시만 해도 주변 시세보다 높은 분양가로 부담스럽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고, 39세대는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기도 했다.

고척동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해당 매물은 올라온 지 하루 만에 거래가 됐다"며 "현재는 같은 평형이 15억원 안팎에 매물로 나와 있다"고 전했다.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입주자는 2028년 8월 예정이다.

지난해 말 입주한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아이파크자이의 경우 전용 84㎡의 입주권이 지난달 20억 6000만원에 실거래를 신고하며 20억원을 돌파했다. 2023년 분양가는 평형 최고가 기준 14억원대로 올해 초 17억원대, 4월 18억원대에 거래된 바 있다.

성북구 장위뉴타운을 보면 최근 몇 년간 분양가 급등세를 실감할 수 있다. 장위뉴타운은 장위동 일대 약 2만 3000가구 규모의 재개발 지구로 현재 1·2·4·5·6·7·10구역이 이미 분양을 마친 상태다.

/안상미 기자 smahn1@

중곡동 노후주거지 2200가구로 탈바꿈

서울시 도계위 정비계획안 통과

서울 광진구 중곡동 노후 저층주거지가 최고 35층, 220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준공 49년 된 용산구 이촌동 반도아파트는 최고 58층으로, 강남구 일원동 한솔아파트는 960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 위원회를 열고 중곡1동 A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일원동 한솔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은 수정가결됐으며 이촌동 반도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은 조건부 가결됐다.

가장 규모가 큰 곳은 광진구 중곡1동 254-15 일대다. 이곳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을 상향하고 사업성 보장계수 1.53과 공공기여 등을 적용해 정비계획 용적률 299.54%, 최고 35층으로 개발한다. 총 2200가구 가운데 임대주택은 424가구다.

중곡1동 A구역은 중랑천과 용마산·아차산에 인접하고 지하철 7호선 군자역과 중곡역 반경 1km 안에 위치한다. 하지만 1974년 토지구획정리사업 이후 노후 저층주택이 밀집하고 이면도로가 협소해 주거환경 개선 요구가 이어져 왔다. 지난해 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뒤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3월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됐다.

정비계획에는 중랑천과 용마산·아차산 사이 단절된 녹지를 연결하는 어린이공원 6724㎡를 조성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랑천에서 아차산 방향으로 폭 20m의 통행축을 확보하고 중랑천변에는 수변 조망형 주동을 배치한다.

/이현진 기자 lhj@

고속도로 15분내 재진입시 기본요금 감면

국토부, 내달부터 시행

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나가도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오면 기본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고속도로 착오 진출 요금 감면'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운전자가 출

구를 착각해 나갔다가 곧바로 재진입해도 통행료에 포함된 기본요금을 다시 내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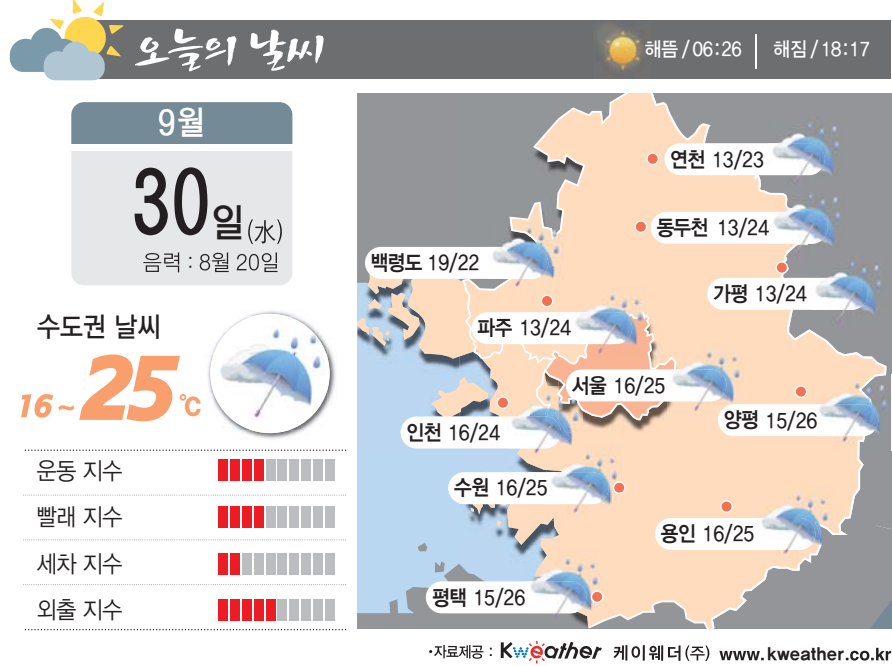
감면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의 폐쇄식 요금소에서 나간 뒤 15분 이내에 동일한 요금소로 재진입한 차량이다. 하이패스와 같은 전자결제 수단을 이용해야 하며, 차량당 연 3회로

한정한다. 민자고속도로 요금소에서는 감면받을 수 없다. 재진입 후 재정고속도로 요금소로 나가면 통행료에서 기본요금이 즉시 차감되며 하이패스 단말기에서는 따로 감면 안내 음성이 나오지 않는다.

국토부는 지난해 이용 기록을 기준으로 연간 약 750만 건, 총 68억원의 통행료가 감면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지난 7월부터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도 진행 중이다.

/성채리 기자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빅쇼트’ 버리 “AI 거품 더 빨리 터진다”…풋음선 베팅 확대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력 약화…중동 원유 수출 80% 회복 /사진 뉴스시

▲日전통극 ‘노’로 연출된 위안부 피해자 배봉기 할머니 사연…日서 상연
▲중국, 스카버리 암초에 고고도 정찰드론 WZ-7 첫 배치

▲헤그세스, 美 중간선거 외국 개입 차단 지시…AI·사이버 역량 동원
▲트럼프 “내가 투표용지에 있다고 생각하라”…공화당 텃밭서 이번주 유세



편의점업계
동절기 준비 분주
호빵 등 조기 출시
L1

metro®

Life

K-바이오기업
안과 질환 치료제
기술이전 등 결실
L2



“자산관리 넘어 다음 세대 육성… 멀티 패밀리 오피스 목표”

속깊은 人터뷰

지희석
스프링플로우 대표

싱가포르의 전 세계 부호들이 가장 빠르게 모여드는 도시다.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 초고액 자산가(순자산 3000만 달러 이상)는 이미 7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억만장자의 수도 5년전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고 규제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갖춘 이 곳은 글로벌 자산가들에게는 ‘안전 가옥(Safe Haven)’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 자산가들에 싱가포르는 여전히 낯선 땅이다. 세금 면제와 안전성이라는 매력을 알고는 있지만, 외환 규제와 자금출처 소명 절차, 엄격한 역외 과세, 현지 정보 부족 등의 문제로 해외 투자를 주저하게 되는 탓이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금융 그룹 ‘스프링플로우’의 지희석 대표는 일찌감치 이 부문에 주목했다. 그는 지난 2018년 스프링플로우 그룹의 모회사를 싱가포르에 설립했고, 이후 계열 운용사가 현지 금융 당국인 싱가포르 통화청(MAS)의 인가를 받았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보험사를 두루 거치며 국내외 금융의 최전선을 경험한 지 대표는, 한국 자산가들에 새로운 자산관리 기회를 제공하고 두 시장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가교 역할이 필요하겠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싱가포르의 규제의 엄격한 속에서 오히려 단단한 신뢰를 다지며 한국의 고액 자산가들이 다음 세대를 함께 준비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설계해 왔다. 지희석 대표는 “한국 시장에만 머물지 않고,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돌리면 자산 관리에 대한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다”며 “MAS 라이선스를 보유한 신뢰도 높은 기관으로, 한국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 기업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금융그룹으로, 업무는 크게 두 축이다. 스프링플로우 웰스 매니지먼트는 자산관리 자문과 컨설팅, 특수목적회사 운영, 해외 자산 회수 자문을 맡고 있고, 스프링플로우 캐피털 파트너스는 MAS의 인가를 받은 벤처 캐피털 운용사로 펀드 운용을 담당한다. 주요 고객은 고액 자산가와 가문, 기관 투자자다. 한국 금융사의 계열사나 현지 법인이 아니며, 싱가포르에서 출발해 현지 규제의 틀 안에서 성장해 온 독립 회사라는 점이 차별화 된다.”

싱가포르 본사 설립… MAS 인가 자산관리 구조 설계·자문 등 업무 “한국 투자자에 새로운 기회 제공”

- 싱가포르에 설립하게 된 계기는.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는 규제의 예측 가능성이다. 통화청의 기준은 엄격하지만 명확하다.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위험도가 낮은 편이다. 두번째는 시차다. 한국과 한 시간 차이로 같은 업무 시간 안에 화상 회의를 하고 일을 마무리할 수 있다. 세번째는 싱가포르가 글로벌 패밀리 오피스가 모이는 대표적인 금융 중심지라는 점이다. 낮은 세금과 자유로운 자본 이동, 높은 수준의 치안, 양질의 국제 교육 기관도 고객이 싱가포르를 선택하는 이유다.”

지 대표는 서울대학교 공학 학사를 거쳐 미국 시카고대학교에서 금융수학으로 석사를 받았다.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자산운용, 롯데손해보험 등을 거치며 국내 금융기관에서 경험을 쌓았다. 그러다 2017년 캐나다에서 처음 회사를 설립했고, 2018년 싱가포르로 이전하며 글로벌 시장에 뛰어들었다. 스프링플로우는 봄춘(春)과 내 천(川)을 영어로 옮긴 것이다. ‘춘천’은 지 대표의 고향이다.

- 국내 금융 시장에서의 경험은 어땠나.

“자산운용사에서 글로벌 헤지펀드 리서치, 보험사에서 해외 및 외화 포트폴리오 매니저로 일하며 10여년 한국 기관의 해외 자산 투자 과정을 경험했다. 한국과 싱가포르는 가까이 보이지만 실제 교류는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양국 시장을 직접 경험하며 무엇이 막히는지를 부딪혀 본 경험이 큰 자산이 됐다.”

- MAS 감독을 받는 회사라는 의미는.

“MAS 라이선스를 받는다는 것은 자격증을 하나 더 갖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다. 싱가포르 금융그룹은 컴플라



지희석 스프링플로우 대표

이언스 체계를 갖춰야 하고, 정기적으로 MAS에 보고를 해야 한다. 임원의 자격도 심사 대상 중 하나다. 근거 법률은 증권선물법이며, 이 법이 정한 규제 활동을 하려면 자본시장서비스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기업 입장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그 부담이 시장에서 신뢰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규제를 받지 않는 곳과 받는 곳의 차이는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여실히 드러난다.”

싱가포르 자산 관리의 핵심 엔진은 패밀리 오피스(Family Office)에 있다. 패밀리 오피스는 초고액 자산가 가문이 자신들의 돈을 전담해서 관리하기 위해 싱가포르에 세우는 법인을 뜻한다. 쉽게 말해, 오직 한 가문(Family)만을 위해 움직이는 맞춤형 자산운용사다. 싱가포르 내 공식 등록된 패밀리오피스 수는 2024년 2000곳을 넘어서며 약 4년만에 5배 증가했다.

- 싱가포르는 왜 주목을 받나.

“싱가포르에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다. 펀드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 제도도 싱가포르 소득세법상 130·13U 제도로 정리되어 있다. 통화가 원화가 아니라는 점, 자산이 놓이는 법 관할이 달라진다는 점도 분산의 관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국제중재 센터가 이곳에 있어 분쟁이 생겼을 때의 절차도 가까이 있어 안전하다. 한국의 사모펀드 규정은 싱가포르의 가변자본회사에 견주면 설립 절차와 투자자 범위, 자산 편입의 유연성이 훨씬 엄격한 수준이다.”

- 국내 투자자들도 납세 의무를 벗어날 수 있나.

“그렇지 않다. 한국 거주자는 어디에 자산을 두든 한국 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해외 계좌와 해외 법인은 요건에 따라 신고 의무가 따르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제재가 있다. 다만 세금이 전부는 아니다. 자산이 원화와 한국이라는 하나의 관할에만 묶여 있지 않게 되는 것, 국내에서 접하기

어려운 자산에 닿을 수 있게 되는 것, 승계를 미리 설계해 둘 수 있게 되는 것이 실제로 고객들이 움직이는 이유다. 제도를 지키면서도 선택지를 넓히는 것이다.”

- 국내 고객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

“투자 상품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 관리의 구조를 설계하고 자문하는 역할에 중점을 둔다. 해외에 법인을 세워야 하는지, 세운다면 어떤 형태여야 하는지, 자산을 옮긴다면 어떤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승계를 염두에 둔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하는지와 같은 것들이다. 여기에 특수목적회사의 운영과 관리, 해외 자산 회수 자문이 더해진다. 특히 해외 자산 회수 자문은 오래 공들여 온 분야다. 해외에 자산을 두면 운용사나 거래 상대방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자산을 되찾는 과정이 훨씬 복잡해진다. 관할이 다르고 절차와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다. 스프링플로우는 오랜 기간, 이러한 일을 처리하고 필요한 전문가와 절차를 연결하는 역할을 해 왔다.”

스프링플로우는 올해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자산 관리 뿐 아니라 금융 교육으로 서비스를 확장한 것이다. 올해 겨울, 일주일 안팎의 시범 과정을 거쳐 내년 7월 자산가 자녀들을 위한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정식 론칭할 계획이다. 한 가문의 자산 관리 계획을 설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함께 해 나가는 것, 스프링플로우가 추구하는 방향이다.

- 금융 교육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패밀리 오피스 일을 하다 보면 반복해서 마주치는 장면이 있다. 가문의 자산 관리를 다음 세대가 맡게 될 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싱가포르 은행들은 이미 이 문제를 인지하고, 고객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우리가 들어갈 자리도 거기에 있다고 봤다. 한국인들도 특정 은행의 고객이 아니어도, 가문이 패밀리

오피스를 두고 있지 않아도 참가할 수 있는 좋은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다.”

- 교육 프로그램 진행 계획은.

“만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기간은 3월, 1주, 2주 등으로 다양하게 제공하려 한다. 특히 중점을 둔 부분은, 단순히 듣기만 하는 교육이 아니라 배운 것을 실무에 직접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참가 학생들은 교육 기간 동안 각자 기업을 하나씩 골라 분석 리포트를 쓰고, 포트폴리오 제안서를 만든 뒤 마지막 날 발표를 하게 된다. 글로벌 금융시장과 싱가포르 금융허브, 자산군과 자산배분, 재무제표와 기업 분석, 밸류에이션과 산업 분석 등을 차례로 다룰 예정이다. 평가는 스프링플로우 캐피털 파트너스의 임원에게 직접 받는다. 수료증만이 아닌, 개별 성과에 대한 심사 결과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내년 금융 교육 프로그램 론칭 예정 인턴십 연계 등 실질 채용창출 목표 “다음 세대와 함께 성장해 나갈 것”

- 향후 어떻게 확대할 계획인가.

“세 단계를 그리고 있다. 우선 프로그램을 대학 재학생을 위한 심화 과정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대학생들을 위한 인턴십 연계도 준비하고 있다. 인턴십은 2주, 1개월, 2개월 과정으로 준비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거쳐 실질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이를 위해 현지 다양한 금융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스프링플로우의 목표는 뭔가.

“멀티 패밀리 오피스로 자리 잡는 것이다. 가문마다 따로 조직을 만드는 대신 스프링플로우를 통해 자산 관리를 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임의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위임한 대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펀드와 신탁, 특수목적회사와 법인을 운영하는 플랫폼에 가깝다. 내년 시작하는 교육 프로그램 역시 연결선에 있다. 가문의 자금을 다음 세대가 직접 운용하려면 준비된 사람이 있어야 한다. 자산가들도 돈으로 싱가포르 자산 운용 자격을 살 수는 없다. 스프링플로우는 학생들이 스스로 필요성을 깨닫고, 그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도울 생각이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그들과 함께 스프링플로우도 계속 성장해 가겠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 사격 안대명·이보나, 트랩 남녀 개인전 결선행 좌절
▲ 프로배구 컵대회, 내달 11일 개막… “올 시즌부터 FIVB 기준으로 인·아웃 판정”



▲ MLB 올해 정규이닝 평균 시간 2시간42분… ABS 챌린지로 1분 길어져
▲ ‘아시안게임 12년 만의 금’ 여자 농구, 박신자 컵으로 새 시즌 준비

[사진 뉴스스]

▲신상우호 여자축구, 한일전 11년 무승 한 풀고 결승 갈까
▲‘전상균 딸’ 역도 전희수, ‘부녀 메달리스트’ 도전은 다음으로